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최근 방카슈랑스 실적 분석과 시사점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방향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발표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제5회 경험생명표 발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개별약관 개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실태 및 조사결과

◆ 해외보험 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아시아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최근 방카슈랑스 실적 분석과 시사점	1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방향	11
보험산업 개관	20
보험산업 환경	23
1. 해외 경제	23
2. 국내 경제	25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7
보험지표 동향	29
1. 보험산업 총괄	29
2. 생명보험	31
3. 손해보험	42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3
1.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발표	53
2. 증권·보험사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56
3. 제5회 경험생명표 발표	59
4.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개별약관 개선	61
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64
6.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실태 및 조사결과	67
해외보험 동향	69
1. 미국 동향	69
2. EU 동향	75
3. 일본 동향	84
4. 아시아 동향	92
통계표	95

테 마 진 단

◆ 최근 방카슈랑스 실적 분석과 시사점

김진익 선임연구원

1. 머리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계기로 방카슈랑스채널의 일반적인 실적과 특성을 논의하고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간 및 보험회사간의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그 개선여부를 알아보고자 함.

-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제도의 도입이 단행되었으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충격과 중소형보험사들의 소외문제를 완화하고자 도입일정이 수정되어 실시됨.
-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간 실적에 대한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채널에 대한 충격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협상력이 우수한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편중화(Polarization)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카슈랑스제도가 수정됨.
- 개정된 2차 방카슈랑스 일정의 골자는 2단계 허용대상을 순수보장성 제3보험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1개 보험회사의 신규모집총액을 49%에서 25%로 축소하는 것이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실적과 특성을 살펴보고 방카슈랑스 판매 후 금융기관보험대리점간 및 보험회사간의 시장집중도가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함.

2. 방카슈랑스채널 판매동향

가.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생명보험의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판매실적은 초기 과열양상에서 벗어나면서 일정한 수익패턴을 보이거나, 보험상품 추가개방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험위주의 일시납시장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음.

- 생명보험 1단계 방카슈랑스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및 신용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음.
- 이들 상품군은 상품특성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의 판매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품들이며 판매 초기부터 전체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분기)의 1/3이상을 점유하는 등 돌풍을 일으킴¹⁾.
- 특히 2003년 4/4분기(48.2%)와 2004년 3/4분기(46.7%)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쟁적인 판매로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중요한 신계약 모집채널로 부상했음.

<표 1>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비중 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기존채널	100.0	67.3	51.8	70.0	63.8	53.3	64.0	67.3	67.8	66.9
방카슈랑스	-	32.7	48.2	30.0	36.3	46.7	36.0	32.6	32.2	3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각 분기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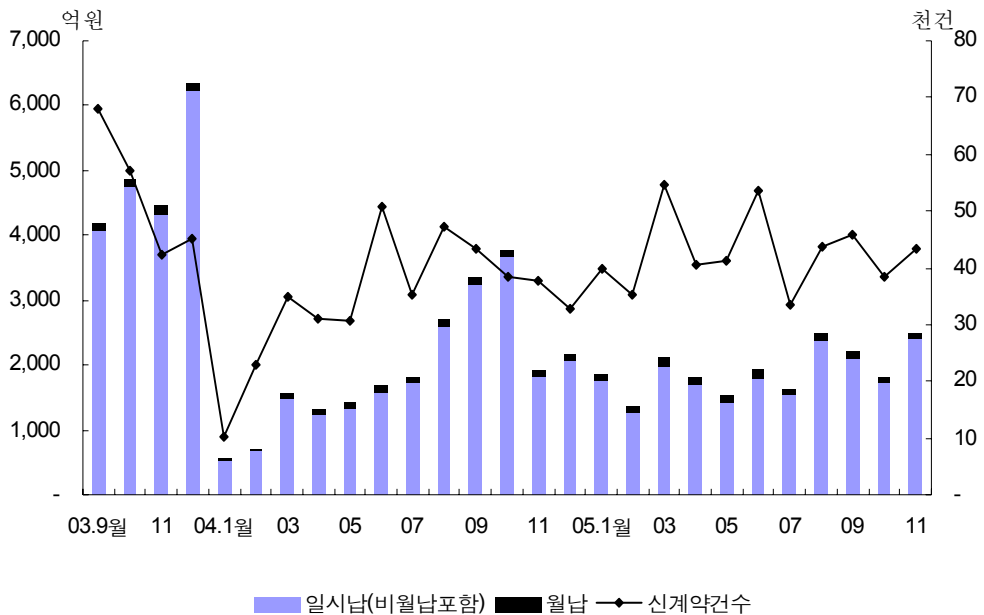
자료: 각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은 2003년 9~12월 동안 1조 9,882억원(초회보험료 기준)이 판매되어 놀라운 실적을 보였으며, 2004년에는 2조 2,996억원, 2005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2조 1,336억원이 판매되고 있어 2005년 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1) 회계연도의 언급이 없는 한 CY를 기준으로 하였음.

-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은 2003년 12월말까지 월평균 5천억원(초회보험료 기준) 가까이 판매되었으나, 2004년에는 월평균 1,916억원, 2005년에는 11월까지 월평균 1,940억원씩 판매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서 순수보장성 제3보험 상품의 판매가 허용되어 판매종목 수가 늘었으나 판매실적은 저조함.
- 제3보험 상품(순수보장성)의 실적은 2005년 2분기 5천만원(초회보험료기준), 3분기 4억 1천만원, 10월~11월 2억 3천만원에 불과,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전체 초회보험료 실적은 2005년 4~11월 실적이 작년 동기간보다 11.0% 감소해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2차 방카슈랑스상품의 판매가 시장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월별실적(초회보험료 기준)



주: 각사 취합자료로 공식 보고되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같음.

- 전체 방카슈랑스의 납입방법별 실적을 보면 2003년에는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이 97.4%이었으나, 2004년 95.5%로 다시 2005년 11월까지 94.2%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판매상품이 대부분 저축성이라는 점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성상 일시납상품을 선호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납입방법별 구성은 순수보장성 제3보험이 개방된 2005년 4월 이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2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의 실적이 저조한 데 기인함.
- 순수보장성 제3보험의 초회보험료구성은 60% 전후로 나타나 1차 허용대상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2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상품 초회보험료 구성

(단위 : %)

	2005. 2/4분기	2005. 3/4분기	2005. 10~11
월납초회	94.9	34.6	44.4
일시납(비월납 포함)	5.1	66.3	55.6
전체	100.0	100.0	100.0

나.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손해보험 방카슈랑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1단계는 장기저축성 보험과 함께 주택화재, 개인상해,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등에 한하여 시행되었음.
- 생명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보험 1차 방카슈랑스 허용상품들의 초기 성과는 은행에서 판매가 용이한 장기저축성 상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했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FY2003 2/4분기 0.1%에 불과했으나, FY2004말에는 2.0%대에 진입하고 FY2005에는 3%대로 증가하는 등 서서히 상승하고 있음.

<표 3>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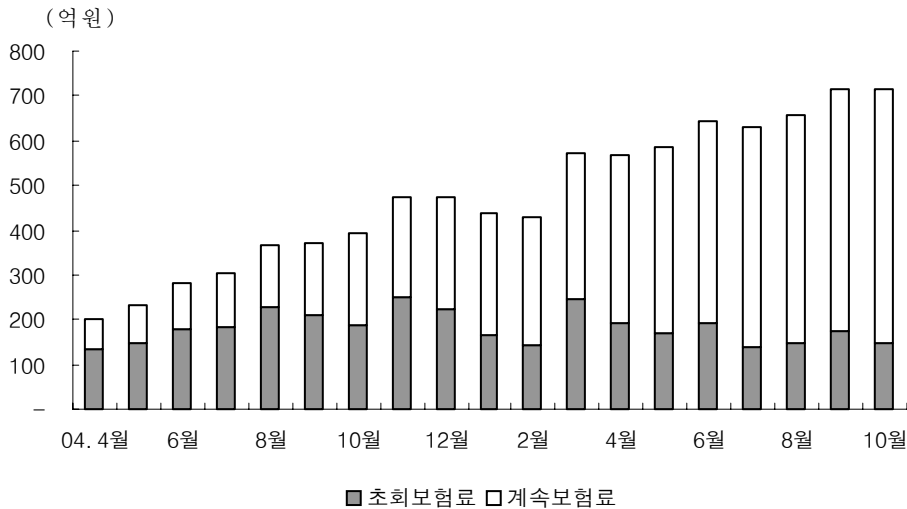
구 분	2003			2004				2005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기존채널	100.0	99.9	99.8	99.8	98.7	98.4	98.3	97.9	96.9	96.9
방카슈랑스	-	0.1	0.3	0.4	1.3	1.6	1.8	2.0	3.0	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누적 실적 기준임.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의 납입방법별 구성은 장기보험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이 낮음에 따라 원수보험료에서 계속보험료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원수보험료 중 계속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FY2004 1/4분기 35.7%이었으나, 3/4분기 50.7%로 50%대를 넘어서면서 FY2005 2/4분기는 77%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2>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월별실적(원수보험료 기준)



3. 방카슈랑스 시장집중도 추이

가. 생명보험 판매집중도 추이

생명보험의 경우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간 그리고 보험회사간 시장집중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시행은 거대유통조직의 출현으로 인한 채널통제력의 약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소형보험사들의 소외문제도 야기할 수 있음.
 - 2단계 방카슈랑스는 중소형사들의 소외문제를 완화하고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단일 보험사 판매비중을 신규모집총액 기준 49%에서 25%로 수정한 바 있음.
- 생명보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의한 판매는 대부분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의 시장집중도와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집중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비중은 은행이 2003년 95%, 2004년 99%, 2005년 11월까지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실적이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 중에서도 7개 시중은행이 85%에 달하는 편중현상을 보임.
 - 또한 생명보험사들 사이에도 대형사들과 방카슈랑스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부 외국사들에 의한 시장집중도가 높음.
 - 이러한 은행의 시장집중도와 생명보험사 시장집중도는 2004년 들어서 오히려 심화되다가 2005년 들어서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2003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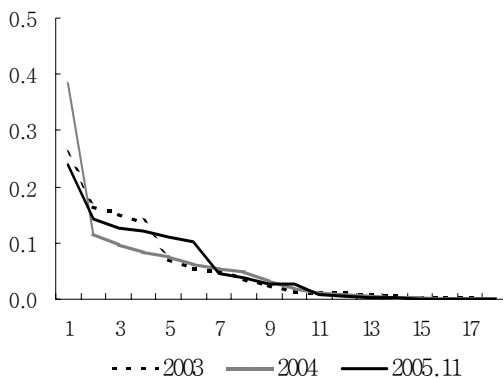
<표 4> 생명보험 시장집중도 추이

구 분	2003(a)	2004	2005. 1~11(b)	증감(b-a)
은행집중도	0.1479	0.1922	0.1345	-0.0134
생보사집중도	0.1153	0.1303	0.0881	-0.0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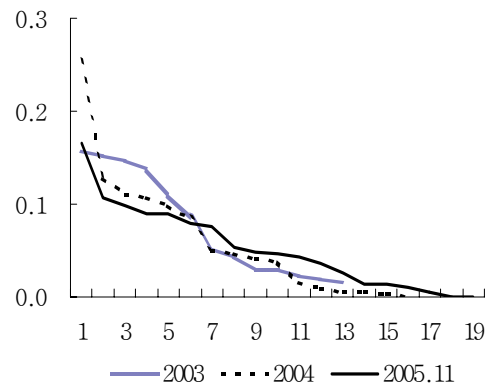
주: 각 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의 점유율(초회보험료기준)에 대한 자승의 합으로 구해지는 허핀달지수임.

- 이러한 시장집중도 완화는 초기 선점했던 은행과 보험사들의 점유율(초회보험료 기준)이 크게 하락하고 2005년 들어서는 중위권 은행과 보험사들의 점유율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특히 시중은행 중 매년 2위에서 6위까지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점유율은 2003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4년 2~4위 은행들의 점유율은 상승하였으며, 2005년 들어서는 2~6위사들의 점유율이 2003년보다 모두 상승했음.
- 또한 생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점유율도 2005년 들어서 7위권 밖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과 2004년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 은행별 시장점유율 추이



<그림 4> 생보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주: X축의 숫자는 조사시점의 시장점유율 1위사부터 하위사로 배열된 것으로서 해마다 해당 기관명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시중은행의 제휴보험사는 초기 4.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8.3개로 늘어나 보험사들의 판매경로도 확대되고 있음.

<표 5> 시중은행의 평균 제휴보험사 추이

(단위 : 개)

구 분	2003	2004	2005. 1~11
회사수	4.1	5.7	8.3

주: 보고된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손해보험 판매집중도 추이

손해보험의 경우도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간 및 보험회사간 시장집중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대부분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명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시중은행보다는 특성상 기업금융대상 은행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금융대리점별 초회보험료실적(신규실적, 일시납제외기준)은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은행이 2003년 98.7%, 2004년 99.0%, 2005년 10월말 98.9%를 차지해 은행으로 편중됨.
-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소수 은행으로 집중현상을 보이고 손해보험사의 점유율도 소수 회사에 의해 분할되는 현상을 보임.
- 은행 중에도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한 보험료수입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수준을 보임.
- 또한 손해보험사들의 판매도 상위 5개사에 집중돼 99%이상을 차지하나, 이들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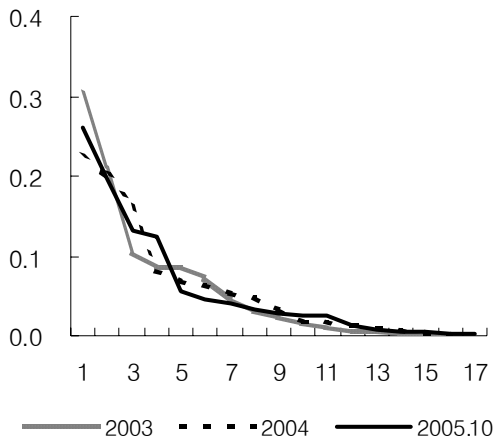
<표 6> 손해보험 시장집중도 추이

구 분	2003(a)	2004	2005. 10(b)	증감(b-a)
은행집중도	0.1709	0.1400	0.1504	-0.0205
손보사집중도	0.2222	0.2226	0.2096	-0.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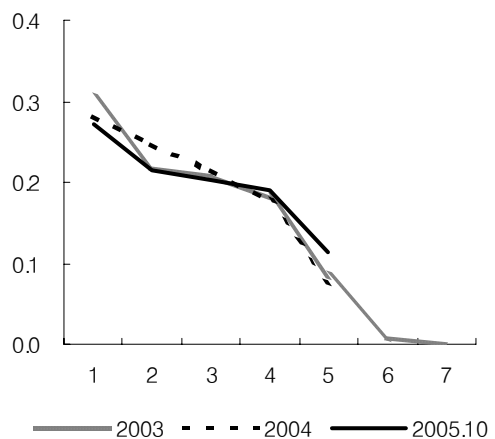
주: 각 은행 및 손해보험회사의 점유율(초회보험료기준)에 대한 자승의 합으로 구해지는 허핀달지수임.

- 그러나 은행 및 손해보험사의 시장집중도는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은행집중도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5> 은행별 점유율 추이



<그림 6> 손보사별 점유율 추이



3. 시사점

2차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금융대리점간 및 보험회사간 시장집중도가 완화되어감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채널다각화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2차 방카슈랑스 이후에도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치우침에 따라 금리리스크관리와 함께 비일시납으로의 유도가 필요함.

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편중화 완화

- ☐ 은행간, 보험사간 판매편중현상은 2차 방카슈랑스 이후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방카슈랑스 판매는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에 편중된 현상이 있으나 25%룰과 같은 제도적 조치가 적용된 2차 방카슈랑스가 시작된 2005년 들어서 시장집중도가 2003년보다도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 만큼 자사의 보험상품판매 전략과 채널전략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채널다각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나. 일시납 지속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와 비일시납 유도

- ☐ 생명보험 방카슈랑스의 상품편중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음.
- 2단계 개방상품의 실적은 매우 낮으며, 생보방카슈랑스는 지속적으로 저축성 상품, 일시납 중심으로 거수되고 있음.
- 따라서 금리리스크 헤지와 함께 완전판매강화와 사후유지율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수입보험료 확보를 위해 비일시납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 손해보험의 경우 2단계 시행 이후에도 보험료수의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원수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계속보험료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방카슈랑스상품의 장기적 관리능력의 배양이 요구됨.

◆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방향

최영목 부연구위원

1. 머리말

각국의 소비자 금융교육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종업원 교육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퇴직연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 관련 저축 및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이 매우 중요함.
-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에게 퇴직연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퇴 시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들의 참여도 및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의 운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법률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연금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 확정급여형(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표준급여액, 지급상황, 사용자 부담금액,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규모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함.
- 확정기여형(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수익,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가입자의 연령과 근속기간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함.

- 근로자들이 은퇴 시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투자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도 이를 수 있음.
 - 국내 제도상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교육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세미나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면 될 뿐임.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단계에서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해 경험이 없음.
 - DC형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 경우에 최근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의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4 미만에 불과한 근로자만이 투자대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투자에 임할 정도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임.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효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와 연구 논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투자교육 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 먼저 OECD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를 통해 각국의 은퇴 관련 저축 및 투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로부터 어떠한 교육방법이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효과적인가를 파악함.
 - 이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각국의 주요 금융교육 현황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교육은 간행물, 웹사이트, 교육과정 프로그램, 공공 캠페인 등을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 은퇴 관련 저축 및 투자에 관한 내용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각국의 금융교육 매체를 조사한 결과 간행물, 인터넷 웹사이트, 교육과정 프로그램, 공공 캠페인 등의 4가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사회보장의 연장선 차원에서 은퇴 관련 금융교육에 초점을 두는 추세임.
- 이하에서는 각각의 금융교육 방법(혹은 매체)에 대해 2개국씩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함.

① 간행물을 통한 금융교육: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사례

- 오스트리아에서는 근로자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와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노동연맹(Chamber of Labour)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장·단점 및 위험 요소에 관해 상세 정보를 담은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Protection Association)에서는 소책자 판매를 통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목돈 만들기나 투자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 폴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3년 Investor's Guide의 발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Investor's Guide가 발간된 이후 매년 내용을 갱신하여 자본시장에서 이슈로 부각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증권시장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Securities Markets)에서 발간한 투자정보 가이드 책자는 2003년 한 해 동안 20만권이 배포되었으며 증권시장과 관련된 류

추일펀드,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과 주주들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고 있음.

② 웹사이트를 통한 금융교육: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례

- ☐ 이탈리아의 금융감독국에서는 "Consob"이라는 웹사이트의 4가지 섹션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환기시키고 있음.
 - o "Warnings" 섹션에서는 금융사기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Dos and don'ts" 섹션에서는 투자자와 증권브로커 사이의 계약에 관련되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o "Know the risks" 섹션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감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001년에 신설된 "Investor education" 섹션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캠페인을 제공하고 있음.
- ☐ 스페인의 금융규제당국에서는 웹사이트인 CNMV의 "Investors' Corner" 섹션을 통해 스페인 증권시장의 기능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이탈리아의 "Consob"와 같은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③ 교육 프로그램: 체코와 미국 사례

- ☐ 체코는 투자회사연합 등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 원칙과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002년에 "Fit for Investment"라는 교육과정을 도입함.
 - o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함.
 - o 매년 프라하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Investment Opportunities"와 "Fund Market"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 미국에서는 기업측의 비용지원 하에 United Parcel Service나 Weyerhaeuser Ltd.와 같은 회사를 통해서 저축 및 은퇴 관련 내용으로 종업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o 종업원 금융교육과정은 일정한 기간 마다 1일 혹은 2일 동안 진행됨.
 - o 특히, UPS社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부채관

리, 예산, 보험, 은퇴 관련 저축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o Weyerhaeuser Ltd.社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나 건강관리와 같은 비금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커버하고 있음.

④ 공공 캠페인: 미국과 멕시코 사례

- ☐ 미국에서는 "Choose to Save"라는 캠페인을 통해 개인들에게 미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저축을 늘릴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함(www.choosetosave.org).
- o 동 캠페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신문, 라디오, TV, 버스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근로자의 연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홍보하는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와 협력하고 있음.
- o 또한 미국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서도 소책자(The Power to Choose)와 브로슈어(Top Ten Ways to Save for Retirement)를 통해 협력하고 있음.
- o 웹상에서 개인의 예산수립, 모기지 구입, 개인의 입장에 따라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계산기능은 Ballpark Estimate Retirement Planning Worksheet에서 지원받고 있음.
- o 캠페인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및 물적 지원은 개별 기업이나 EBRI의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 멕시코에서는 1997년 기존의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적립방식(funded system)인 "Afore"연금(DC형)으로 개혁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은퇴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 유발과 새로운 연금 홍보를 위해 캠페인이 필요하게 되었음.
- o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웹사이트의 배너광고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3. 투자 및 은퇴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금융지식 보유수준, 그리고 교육 방법 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피교육자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발생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주관적 및 객관적 방법이 있음.
 - 주관적 방법은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가 혹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축이나 연금계좌의 개설을 늘릴 의향이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접근법을 의미함.
 - 객관적 방법은 금융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목표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측정하는 계량적 접근법을 의미함.
- 주관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피교육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수준, 교육수준, 혹은 사전적 금융지식 보유수준에 따라 교육방법을 달리해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34%가 세미나 참석 이후 은퇴 관련 저축목표를 변경할 것으로 응답하였음²⁾.
 -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경향이 적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라디오를 선호하며, 노년층의 경우 세미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금융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인터넷을 선호하고,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적인 가정주부의 경우 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의 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2) Clark, Robert L., Madeleine B. d'Ambrosio, Ann A. McDermed, and Kshama Sawant, "Financial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s", *working paper*, Washington, D.C., 2003.
 3) Rhine, S. and M. Toussaint Comeau, "Money Attitudes and Retirement Plan Design: One Size does Not Fit All", *working paper*, The Wharton School, U of Pennsylvania, 2002.

- 객관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봉수준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고객특성에 따라 금융교육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쇄물을 통한 정보제공은 효과가 적었으며 일대면 직접 대면에 의한 카운셀링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은퇴 관련 세미나 실시 이후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401(k)플랜에 대한 참여율과 기여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참여율 향상은 저조하였고 기여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⁵⁾.
 -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저축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실증결과도 있음⁶⁾.
- 연금설명서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소비자 금융교육은 401(k)플랜에 대한 참여율과 기여율 증대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⁷⁾.
 - 이 외의 연구에서도 인쇄물의 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결과를 보여줌⁸⁾.
- 금융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은 아니지만 일대일 대면을 통해 고객 맞춤형 카운셀링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행동을 바꿔 참여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조사됨⁹⁾.

4) Hilgert, M. and J. Hogarth,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Washington D.C., 2003.

5) Bayer, P., D. Bernheim and K. Scholz,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Employers", *working paper*, No. 5655, NBER.,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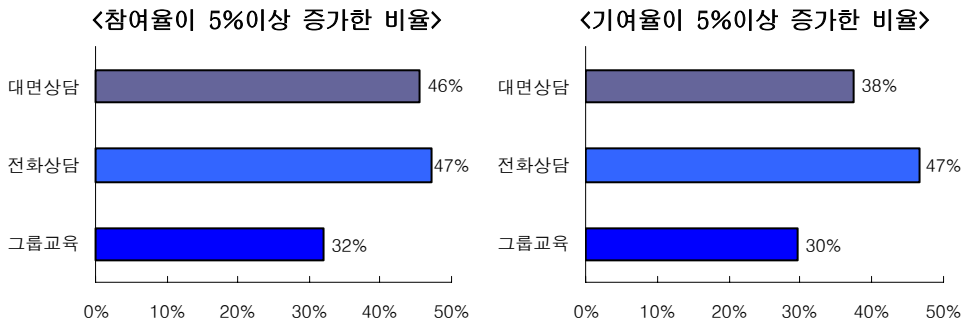
6) Lusardi, A., "Saving an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working paper*, The Wharton School, U of Pennsylvania, 2003.

7) 각주 4)번과 동일함.

8) Clark, R. and S. Schieber,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Rates and Contribution levels in 401(k) Plans*, U of Pennsylvania Press, 1998.

9) Ernst and Young LLP Human Capital Practice, *The Role that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Play in Influencing Participant Behavior in 401(k) Plans*, 2004.

<그림 1> 교육방법에 따른 401(k)플랜 참여율 및 기여율 증가효과



자료: Ernst & Young LLP Human Capital Practice, *The role that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Play in Influencing Participant Behavior in 401(k) Plans*, 2004.

4. 시사점

피교육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타금융권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설계사와 텔레마케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의 금융교육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초적인 금융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은퇴 이후 자금 마련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퇴관련 금융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므로 사회보장의 증진을 고려하여 은퇴와 관련된 자금마련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상호 협력하여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은퇴 이후 대비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준 후 구체적인 금융상품이나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금융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피교육자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 혹은 매체를 달리해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피교육자의 소득수준, 학력수준, 사전적 금융지식 보유수준 등에 따라 교육방법

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교육 실행과정에서 피교육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로부터 수집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전달매체를 선택하고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달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보험회사는 타 금융권과 달리 유일하게 일대일 대면에 의한 금융교육이 가능한 설계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설계사 조직과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별로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음.
-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되는 가운데 일대일 대면을 통한 소비자 금융교육이 중요해질수록 보험회사의 설계사 조직에 대한 교육이 우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궁극적으로는 투자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사의 전문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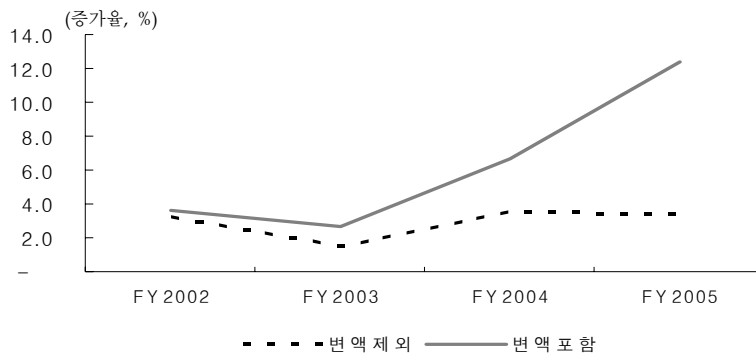
보험산업 개관

변액보험은 최근 급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생존 및 생사혼합 등 저축성 종목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생명보험 성장과 변액보험>

- 변액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2조원을 상회하기 시작한 FY2004부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변액보험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변액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FY2002년 이후 4.0%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음.
- FY2005 상반기(4~9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은 변액보험을 제외할 경우 3.5%에 불과하나 변액보험이 365.8%의 큰 폭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체 생명보험 성장률도 전년동기간대비 12.3%에 이름.
- 동기간 변액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성장률은 1.8%에 그치고 있으나 변액보험을 포함할 경우 11.4%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성장률과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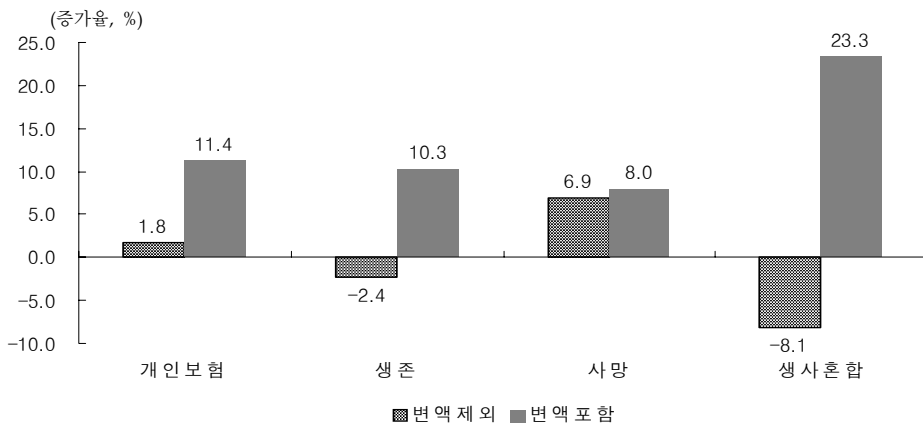


주: FY2005는 4~9월 기간 기준

<종목별 성장률과 변액보험>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변액보험을 제외한 고유계정의 경우 2005년 4~9월 중 전년동기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변액보험을 포함할 경우 변액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4~9월 중 변액보험의 종목별 전년동기간대비 성장률은 생존(변액연금) 256.7%, 사망(변액종신+CI) 75.8%, 생사혼합(변액유니버설) 1162.3%를 기록함.
- 2005년 4~9월 중 생존과 생사혼합 보험의 전년동기간대비 성장률은 각각 -2.4%, -8.1%였으나,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의 고성장에 힘입어 성장률이 10.3%, 23.3%에 이름.
-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 변액종신 및 변액CI의 영향이 크지 않아 고유계정과 변액을 포함한 전체 성장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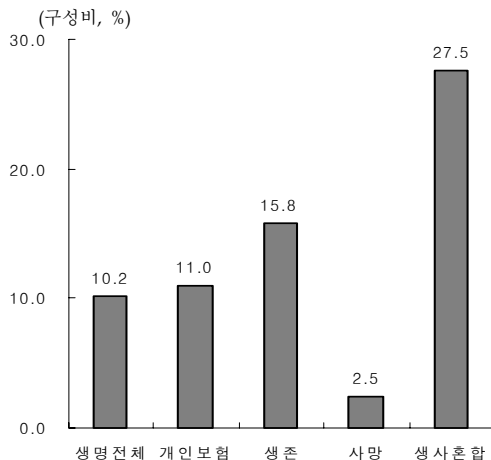


주: FY2005 4~9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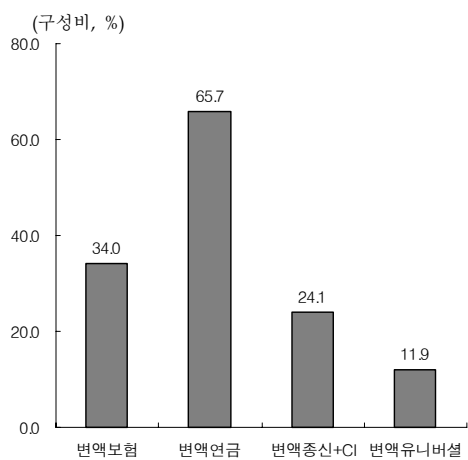
- 변액보험은 단기간에 급성장을 지속하여 FY2005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이 생사혼합보험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액연금은 생존보험의 15.8%를 차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변액보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변액보험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중에서의 비중이 2.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변액보험은 주로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강한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에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FY2005 4~9월 중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2조 8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약 1조 4천억원이 변액유니버설 그리고 약 1조원이 변액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 종목별 수입보험료 중 변액보험의 비중 <그림 4> 변액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주: 1) FY2005 4~9월 기준임.
2) 종목별 변액보험 수보/생명보험 수보



주: 1) FY2005 4~9월 기준임.
2) 종목별 변액보험 초회/변액보험 수보

- 변액보험에서 초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액연금에서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변액연금의 일시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수입보험료에서 초회보험료의 비중이 높을수록 일시납 형태로 납부되는 수입보험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변액유니버설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비중이 낮아 수입보험료가 대부분 월납형태로 거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변액연금은 과반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일시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5년 3/4분기에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일본과 EU 지역의 경기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5년 3/4분기에 미국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일본과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
- 미국은 3/4분기에 서비스와 내구재 중심의 소비증가, 산업장비와 같은 기업설비 투자의 증가, 국방비 지출증가 등에 기인하여 연율로 4.3%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용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실업률이 5% 수준을 유지함.
- 중국은 3/4분기에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이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10월의 수출증가율은 9월보다 다소 상승한 29.7%를 기록하는 등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9.4%를 기록함.
- 일본은 9월 들어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세계적 소비지출 감소 여파로 소매판매와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으나 전반적으로는 고용개선과 내수가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냄.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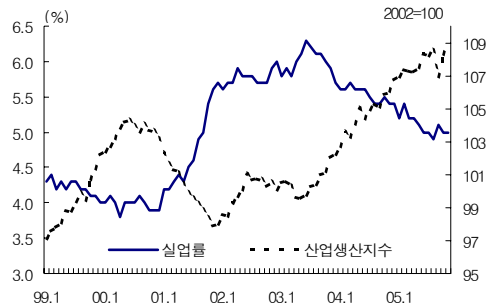
(단위: %)

	2003	2004	2005		
			1/4	2/4	3/4
미 국	3.0	4.2	3.8	3.3	4.3
일 본	2.0	1.9	1.3	2.1	3.0
중 국	9.1	9.5	9.4	9.5	9.4
E U	1.0	2.3	1.2	1.2	1.6

주: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EUROSTAT,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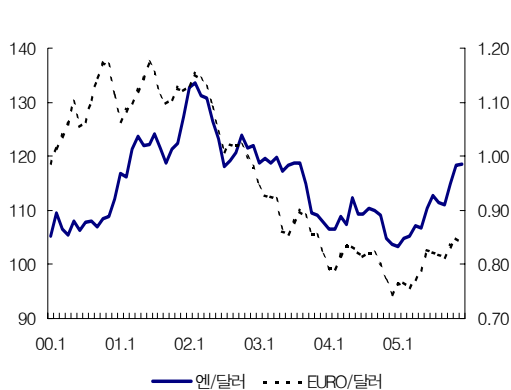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생산과 실업률 추이



자료: FRB St. Lo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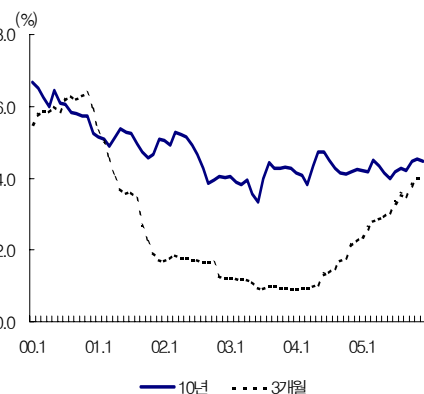
- 유로지역은 6월 이후 산업생산의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며,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은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8월 중 유로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3/4분기 들어 주요 경기지표들의 회복세가 지속됨.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1월 중반까지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보합,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시현함.
- 美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과 인플레이션의 압력 증대에 기인하여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9월 4.20%에서 10월 4.46%, 11월 4.54%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 4.47%로서 다소 하락세로 전환됨.
- 유로/달러 환율이 2005년 8월말 0.810, 10월말 0.835, 12월말 0.840으로 달러강세를 나타내고, 엔/달러 환율은 2005년 8월말 111.38, 10월말 115.64, 12월 6일 120.8까지 상승했다가 2006년 1월 10일 114.4로 급격히 하락하여 엔화 강세기조로 전환됨.
- 미국의 주가는 3/4분기 중 기업들의 경영악화와 금리인상의 지속 등에 기인하여 약보합세를 나타내다가 12월 들어 회복세를 나타냄.
-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004년말 10,783에서 2005년 9월말 10,568.7까지 약세를 나타내다가 12월 말일에는 10717.5로 다소 회복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기간 평균 환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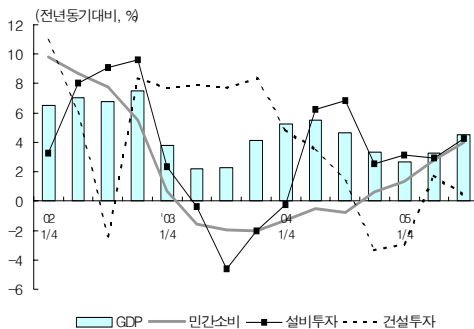
주: 기간 평균 금리임
자료: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2005년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상승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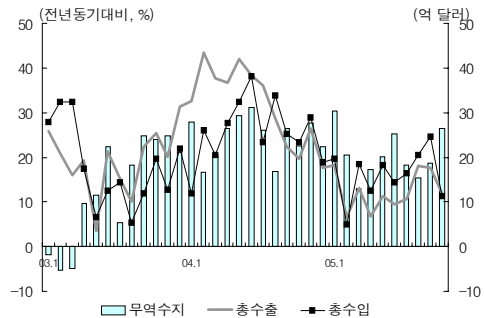
- 2005년 3/4분기 중 설비투자과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4.5%가 성장함.
- 설비투자는 전자 및 정밀 기기 등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2%가 증가함.
-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TV, 컴퓨터, 승용차 등의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의료, 통신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확대되어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4%, 2/4분기에 2.8%, 3/4분기에 4.0%의 증가세를 시현함.
- 2005년 3/4 및 4/4분기에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4%와 11.6%가 증가한 711.5억달러와 770억달러, 수입은 20.8%와 14.8%가 증가한 661억달러와 708억달러로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함.
- 주요 수출 품목별 12월의 추정치를 보면, 반도체 18.7%, 자동차부품 29.6%, 일반기계 31.5% 등이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여 호조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이 5.8%감소한 반면 일본은 6.0%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28.2%가 증가함.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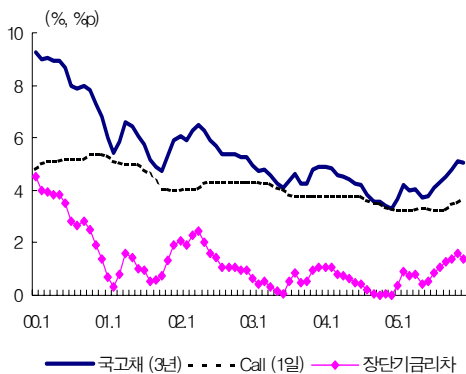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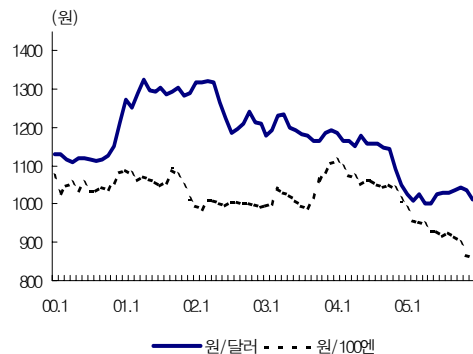
- 2005년 중 원자재 수입은 국제 원유가격 상승과 철강 및 금속의 국제가격 약화가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2월에는 28.0%의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4/4분기 들어 원화 강세기조로 마감하였음.
-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주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8월말 4.16%에서 12월말 5.06%로 오름세를 지속함.
- CD 91일물 유통수익률도 장기금리의 상승과 MMF의 감소에 따른 매입수요의 둔화 등에 기인하여 8월말 3.51%에서 12월 30일에는 4.09%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함.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출 등에 기인하여 10월말에는 다시 1,042.7원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2월 말에는 1,013원으로 마감하면서 3개월만에 무려 29.7원이 하락함.
- 원/엔화(100엔) 환율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말에는 전년 동월대비 무려 15.1%가 하락한 859.9원으로 마감하여 원화강세를 시현함.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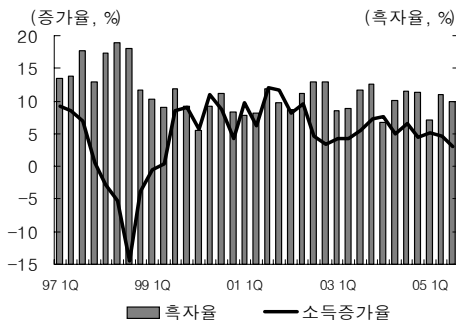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3/4분기 이후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한 소비자자기대지수는 점차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자본시장의 호황에 따라 주식관련 금융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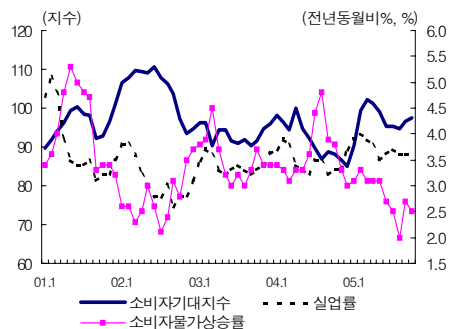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의미하는 소비자평가지수는 9월 81.2, 10월 83.4, 11월 84.9로 상승하였으며,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자기대지수는 9월 96.7, 10월 97.5, 11월 98.5로 상승함.
- 12월 이후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소비자자기대지수가 기준치(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소비자자기대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아짐.
- 취업자수는 2005년 10월 중 전년동월대비 28.4만명 증가하여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내수회복세를 반영하여 서비스업에서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함.
- 2005년 3/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4만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실질소득으로는 0.2% 감소)하였으며, 경상소득은 281만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가 증가하였고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0%가 증가함.

<그림 8> 가계 소득,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 = 1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통계청

보험산업 환경

- 2005년 3/4분기(FY2005 2/4분기)중 투신권의 MMF 이탈자금이 은행의 MMDA 등 수시입출금식 및 고금리특판 정기에금으로 몰렸으며 보험권에서는 변액연금 및 퇴직보험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됨.
 - 은행권의 경우 고금리 특판에 따른 1년 이상 장기에금이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9월중 4.5조원 증가) MMDA와 같은 수시입출금식예금이 크게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적으로 큰 폭 증가함(9월 중 10.1조원 증가).
 - 투신권의 경우 MMF는 법인세 납부, 단기금리의 상승 등에 따라 기업자금이 이탈 하면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금리와 주식시장의 동반 상승으로 채권형펀드가 감소한 반면 주식형 펀드로 증가세 확대됨.
 - 생명보험은 변액연금 및 퇴직보험의 인기가 지속되고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5년 3/4분기(FY2005 2/4분기)에 보험권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5,910억원의 수신이 증가함.
-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자본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변액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생명보험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손해보험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은 행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일반계정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신탁계정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증 권	-5,145	5,049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투 신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중 금	-20,816	7,090	940	-18,256	19,416	2,048	-10,616

주: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5 2/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증시호황이 지속되면서 변액보험 중심의 성장이 이어졌고, 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 상품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면서 10.8%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함.

- FY2005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0.8% 성장함.
-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퇴직보험도 양호한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1.7%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성장을 이끌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도 전반적으로 회복하면서 8.8%의 양호한 성장을 나타냄.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2.7	6.3	10.4	0.5	11.4	6.7	13.0	11.7
손해보험	213,743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61,236	62,063
	3.8	9.0	8.1	9.3	8.1	8.6	9.8	8.8
합 계	717,668	176,933	183,729	217,954	191,062	769,679	198,169	203,600
	3.0	7.1	9.7	2.9	10.4	7.2	12.0	10.8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5 2/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3.2%, 손해보험이 3.5%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3% 성장함.

- FY2005 2/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자산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손해보험도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며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270조 6,437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24조 3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특별계정 준비금전입액이 증가하면서 3.2%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46조 6,126억원으로 장기손해보험중심의 보험료 증가 및 이에 따른 준비금이 증가하고 투자수지가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3.5% 증가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종목 \ 연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14.1	2.2	4.1	5.3	0.8	12.9	2.6	3.2
손해보험	388,229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450,522	466,126
	9.8	1.8	3.5	4.3	1.9	15.0	3.6	3.5
합계	2,261,844	2,310,389	2,403,034	2,525,845	2,550,818	2,550,818	2,621,234	2,706,437
	13.3	2.1	4.0	5.1	1.0	12.8	2.8	3.3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5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7% 성장한 14조 1,537억원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392.4% 증가하고 일반계정 생사혼합보험의 감소세도 -7.7%로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11.6% 증가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전년동기대비 75.7%)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2.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FY2005 2/4분기 총자산 규모는 224조 31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2% 증가함.
 - 일반계정 수지악화와 준비금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수지차가 개선되고 준비금전입액도 증가하면서 총자산은 꾸준히 증가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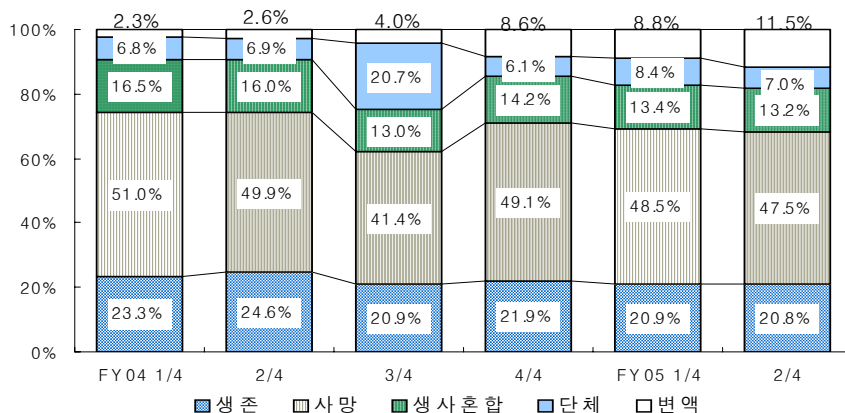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자 산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14.1	2.2	4.1	5.3	0.8	12.9	2.6	3.2
수입보험료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2.7	6.3	10.4	0.5	11.4	6.7	13.0	11.7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5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비중은 일반계정 사망보험 47.5%, 생존보험 20.8%, 생사혼합보험 13.2% 및 단체보험 7.0% 등으로 모두 축소된 반면 변액보험이 11.5%로 비중이 크게 확대됨.
- FY2005 2/4분기는 주식시장의 지속적 호황에 따른 펀드상품의 활성화와 함께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의 비중이 크게 확대하였음.
 - 일반계정 사망보험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부 수요의 변액보험화가 지속됨에 따라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했음.
 - 일반계정 생존보험도 전년 동기간의 급상승에 따른 상대적 감소와 변액보험의 성장에 따라 생존보험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 3.8%p 감소함.
- 일반계정 중 무배당보험 구성비는 전년동기보다 3.3%p 증가한 86.1%였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2.4%p 증가한 44.8%로 무배당화와 금리리스크 전가현상이 지속됨.
 - 종목별로 장기건강보험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의 경우 소폭 비중이 증가하였고 질병보험은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
- 변액보험 중 변액유니버설보험이 48.1%, 변액연금 41.4%, 변액기타(대부분 변액 CI) 5.4%, 변액종신 5.1%로 변액연금보험의 비중이 6.9%p 증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5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의 큰 폭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한 13조 1,646억원이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12.8% 증가한 9,891억원이었음.
- 일반계정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한 2조 9,441억원을 거수하여 감소세로 반전됨.
 - 이는 저금리 현상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연금보험이 감소세(-7.7%)를 지속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일반계정 사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6조 7,289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었으나 성장세는 소폭 감소함.
 - 이는 질병보험이 10.7% 성장하는 등 건강관련 보험의 증가가 있었으나 비중이 큰 종신보험의 성장이 2.0%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낸 데 따른 것임.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한 1조 8,700억원의 실적을 보이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변액보험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하여 포함시킬 경우, 2/4분기 성장률은 각각 10.7%, 7.3%, 26.5%로 상승함.
- 단체보험의 경우 지난 분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12.8% 성장하는 양호한 성장을 보임.
 - 이는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이 불안을 느낌에 따라 퇴직보험이 75.7% 증가한 데 기인하며, 반면 일반단체보험은 크게 감소(29.9%)함.
- 상품별로는 건강보험이 전년동기대비 4.9%, 질병보험이 10.7%로 지난 분기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함.
 - 또한 상해보험(1.8%), 어린이보험(4.4%), 종신보험(2.0%) 등의 성장세가 감소했으며 일반계정 변액보험이 전분기대비 17.8% 성장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15,676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28,600	29,441
	성장률	26.5	18.3	17.4	-12.1	4.2	4.9	1.2	-5.6
	구성비	23.0	23.3	24.6	20.9	21.9	22.6	20.9	20.8
사망	보험료	229,359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66,402	67,289
	성장률	8.3	11.2	12.9	11.8	9.6	11.3	7.4	6.5
	구성비	45.5	51.0	49.9	41.4	49.1	47.5	48.5	47.5
생사 혼합	보험료	94,505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18,312	18,700
	성장률	-14.4	-14.6	-11.8	-22.4	-13.0	-15.7	-8.6	-7.7
	구성비	18.8	16.5	16.0	13.0	14.2	14.8	13.4	13.2
변액 보험	보험료	7,621	2,785	3,293	6,256	11,456	23,789	12,093	16,215
	성장률	285.7	202.8	189.9	94.9	386.3	212.2	334.3	392.4
	구성비	1.5	2.3	2.6	4.0	8.6	4.4	8.8	11.5
개인 계	보험료	447,161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125,408	131,646
	성장률	7.6	8.7	10.6	-0.4	11.7	7.4	11.1	11.6
	구성비	88.7	93.2	93.1	79.4	93.9	89.3	91.6	93.0
단체	보험료	56,764	8,262	8,769	32,158	8,177	57,366	11,526	9,891
	성장률	-24.5	-18.3	8.3	4.3	5.8	1.1	39.5	12.8
	구성비	11.3	6.8	6.9	20.7	6.1	10.7	8.4	7.0
합계	보험료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성장률	2.7	6.3	10.4	0.5	11.3	6.7	13.0	11.7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2/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소형사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현상이 이어짐.
- 상위 3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7.5%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감소했으며 전분기에 비해서도 1.8%p나 감소하는 등 시장점유율 축소가 지속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들은 수입보험료가 각각 23.0%, 18.8%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6.1%와 18.6%로 확대됨.
 - 국내 중소형사들은 수입보험료가 일반계정에서도 양호한 성장을 하고, 특히 변액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3.0%의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점유율이 1.1%p 상승함.
 - 외국사 또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96.9% 증가하고 특히 일부사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72.0	70.1	67.9	68.6	67.7	68.5	67.1	65.3
상위 9개사	89.4	88.4	86.3	86.5	86.0	86.8	85.3	84.6
외 국 사	13.6	15.5	17.4	15.3	17.7	16.5	18.0	18.6
국내중소형사	14.4	14.4	14.7	16.1	14.6	15.0	15.0	16.1
허핀달지수	0.2024	0.1935	0.1807	0.1847	0.1823	0.1848	0.1833	0.1731

- 주: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5년 9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5 2/4분기 당기순이익은 기타수지가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5.0% 감소한 1조 1,388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비용이 11.5% 증가하고 보험영업수익은 1.4%의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보험영업수지차가 27.2%나 감소하여 총영업수지 악화를 주도함.

- 보험영업비용 증가는 연금보험의 해약이 증가하고 사망보험의 환급금 증가에 기인함.

○ 투자영업수익은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투자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함.

○ 기타수지 흑자가 이어졌고 준비금전입액이 일반계정의 실적부진에 따라 소폭 감소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118,151	242,546	368,818	492,808	121,728	245,944
	투자영업	33,879	63,184	101,735	129,822	29,363	60,610
	기타	868	1,451	2,015	5,548	14,412	6,575
	소계	152,898	307,181	472,568	628,178	165,502	313,129
총 비 용	보험영업	88,544	179,129	276,027	391,414	96,807	199,745
	투자영업	5,882	9,617	14,112	22,410	5,413	11,621
	기타비용	3,260	7,076	19,493	20,123	12,680	3,814
	소계	97,686	195,822	309,632	433,946	114,900	215,181
수 지 차	보험영업	29,607	63,417	92,791	101,395	24,921	46,199
	투자영업	27,997	53,567	87,623	107,412	23,950	48,989
	기타	-2,392	-5,625	-17,478	-14,575	1,732	2,761
	소계	55,212	111,360	162,936	194,232	50,603	97,948
준비금전입		42,688	90,655	133,639	167,578	42,154	83,547
법인세		8	8	646	5,602	1,644	3,014
당기순이익		12,517	20,696	28,651	21,051	6,805	11,388

주: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5 2/4분기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입보험료가 증가했으나 지급 보험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반면, 사업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임.
- 생존보험 중 연금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전년동기대비 30.3%) 사망보험 지급보험금도 증가하면서 전체 일반계정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상승함.
 - 상품별로는 일반계정 상해보험이 58.3%, 질병보험 46.8%, 어린이보험 37.2%, 장기건강보험 27.0%, 종신보험 22.3%의 보험금지급률을 보임.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보다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지급률	63.0	59.9	56.7	51.5	68.4	58.8	58.6	57.6
생 존	50.4	52.8	48.9	54.0	66.4	55.7	55.6	52.9
사 망	32.2	32.6	33.8	35.9	36.7	34.8	33.5	35.4
생사혼합	126.6	123.9	112.7	115.6	125.0	119.3	100.0	98.1
개 인 계	57.2	54.5	52.0	55.3	60.4	55.6	52.3	52.8
사 업 비 율	17.1	18.0	18.6	16.0	24.6	19.2	19.0	18.6
신 계 약 률	27.4	6.2	12.7	19.2	27.3	27.3	3.3	12.4
해 약 률	16.2	4.3	8.0	11.5	14.2	14.2	5.5	6.1

주: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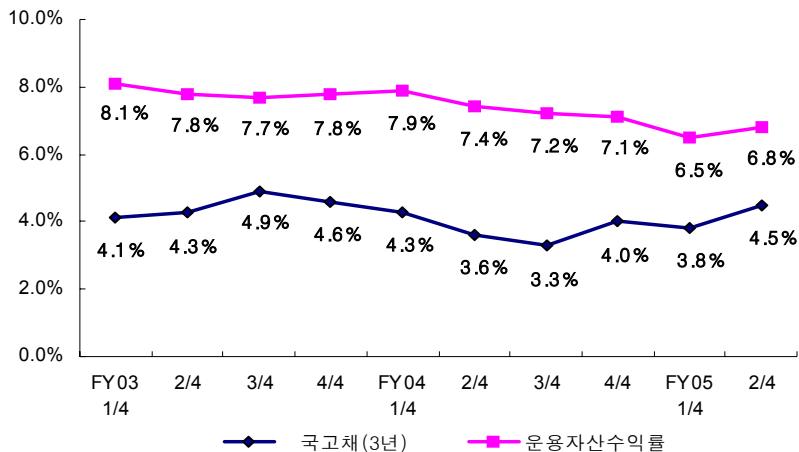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5 2/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0.3%p 증가한 6.8%였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운용수익률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의 호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전분기대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매도가능증권의 채권비중이 0.8%p 감소하고 주식비중은 0.8%p증가하면서 금리상승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소폭 증가함.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주식수익률이 63.9%에 이르면서 구성비가 전분기 비해 0.2%p 증가하였음.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분기에 비해 0.1%p 소폭 증가하고 평균수익률도 채권수익률 개선으로 0.2%p 상승함.
- 한편 만기보유채권 등은 전분기대비 비중이 0.3%p 상승했으나 만기보유채권의 수익률이 정체됨에 따라 전분기와 같은 5.8%의 수익률을 보임.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5 2/4분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전년동기대비 채권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1.0%p 증가하고 주식보유도 1.0%p 증가하였으나 기타자산은 2.4% 감소했음.
- 전년동기대비 금리가 0.2%p 상승하면서 채투자수익률 증가보다는 평가익의 하락에 따른 효과가 더 커 전체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유가증권 투자비중은 2.4%p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은 2.1%p가 감소했으며 대출 중 81.0%가 개인대출로 이루어짐.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0	2.9	2.0	3.0	1.6	3.4	1.9	3.6	2.2	3.5
유 가 증 권	56.6	6.6	57.2	6.3	57.7	6.2	58.5	5.8	59.0	6.1
○ 단기매매증권	2.7	8.9	3.5	8.0	3.1	7.6	3.0	6.8	3.2	9.5
- 주 식	0.2	14.9	0.2	16.2	0.2	25.3	0.2	27.1	0.3	63.9
- 채권 등	1.7	11.0	1.6	11.2	1.6	8.6	1.9	6.1	1.9	5.2
- 수익증권	0.9	4.8	1.7	3.6	1.3	4.0	0.9	4.1	1.0	6.5
○ 매도가능증권	45.3	6.8	45.5	6.5	46.6	6.4	47.4	5.7	47.5	5.9
- 주 식	3.7	3.1	3.6	2.3	4.0	3.0	3.9	2.0	4.6	3.3
- 채권 등	39.1	7.2	39.6	7.0	40.3	6.8	40.8	6.2	40.0	6.5
- 수익증권	2.5	6.8	2.3	5.7	2.4	5.7	2.8	3.0	2.9	2.4
○ 만기보유증권	7.7	4.9	7.4	5.0	7.1	5.2	7.3	5.8	7.6	5.8
- 채권 등	7.7	4.9	7.4	5.0	7.1	5.2	7.3	5.8	7.6	5.8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6.9	0.8	1.8	0.8	1.2	0.8	4.8	0.8	5.5
대 출 채 권	24.7	10.0	23.7	10.0	23.5	10.1	22.7	9.3	22.6	9.3
부 동 산	4.8	4.3	4.6	5.0	4.6	4.7	4.5	3.7	4.5	3.8
운 용 자 산 계	88.2	7.4	87.4	7.2	87.3	7.1	87.7	6.5	88.4	6.8
비 운 용 자 산	11.8	6.0	12.6	10.7	12.7	8.8	12.3	3.0	11.6	2.4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2.4)	7.2	100.0 (91.4)	7.6	100.0 (91.2)	7.3	100.0 (90.9)	6.1	100.0 (90.4)	6.2
특 별 계 정 자 산	7.6	4.7	9.4	5.1	9.7	5.1	10.0	4.5	10.6	5.5
총 자 산	100.0	7.0	100.0	7.4	100.0	7.1	100.0	6.0	100.0	6.2
총 자 산 규 모	1,993,836		2,099,079		2,116,098		2,170,712		2,240,311	

주: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5 2/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임직원과 설계사의 초회보험료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방카슈랑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의 경우 퇴직보험의 초회보험료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임직원 전체 초회보험료 비중이 증가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중 설계사의 비중이 69.2%에 달하면서 전체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5.9%p 상승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33.2%로 전년동기보다 13.5%p 축소되었는데 이는 임직원에 의한 퇴직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설계사에 의한 변액보험판매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보다는 0.1%p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대리점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 직 원	17.8	8.1	13.6	29.2	8.5	16.5	23.5	21.5
설 계 사	37.2	47.0	33.5	28.3	49.6	38.2	37.7	39.4
대 리 점	7.5	8.3	5.9	6.3	8.9	7.2	6.6	6.0
중 개 사	-	0.0	0.1	0.0	0.0	0.0	0.0	0.0
T/M	2.3	0.3	0.2	0.2	0.3	0.3	-	-
C/M	0.1	0.0	0.0	0.0	0.0	0.0	-	-
방카슈랑스	34.8	36.3	46.7	36.0	32.6	37.8	32.2	33.2
기 타	0.3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383	11,868	16,443	21,974	16,569	66,853	15,713	19,375

주: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5 2/4분기말 보험설계사수는 감소했으나 대리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임직원수도 증가하는 등 채널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형사들을 제외한 대형사와 외국사들의 임직원수가 증가했으며 대리점의 경우는 외국사가 대리점수를 크게 증가시킴.
 - 한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에서 설계사들의 수가 줄었으나, 일부 외국사의 경우 설계사 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킴.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6,201	26,237	26,015	25,412	25,276	25,688
설 계 사	145,496	144,714	139,945	136,947	134,172	129,647
대 리 점	7,268	7,003	6,718	6,672	6,572	7,238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6조 2,063억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16.5%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정체와 가격경쟁 지속으로 2.5%의 성장에 그침.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에서의 높은 성장, 해상보험의 플러스 성장 전환, 특종보험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다소 회복되었음.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와 투자수지 확대에 기인하여 46조 6,12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5% 성장하였음.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61,236	62,063
	9.0	8.1	9.3	8.1	8.6	9.8	8.8
총자산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450,522	466,126
	1.8	3.5	4.3	1.9	15.0	3.6	3.5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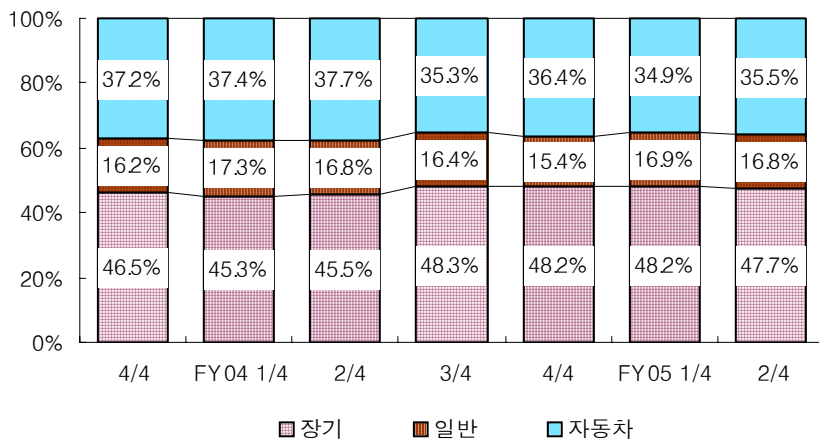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47.7%, 자동차보험 35.5%, 일반손해보험 16.8%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2.2%p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2.2%p 감소하였음.
-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퇴직보험의 점유율 축소로 인하여 전분기보다는 0.5%p 감소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5 2/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2,0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2004년 11월 기본보험료 인상, 2005년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대수 정체 및 가격경쟁 지속으로 인하여 저성장세를 나타냄.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5년 9월 현재 2.7%로 여전히 정제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건강관련 보험 및 저축성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전 종목에서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성장한 2조 7,435억원을 나타냈으며,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 FY2005 2/4분기 부문별 성장률의 경우 상해 16.3%, 질병 4.0%, 저축성 25.6%를 기록함.
-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제외) 점유율은 44.2%로 전년동기대비 2.9%p 증가함.
- 보증보험은 2005년 4월 도입된 모기지신용보험의 판매 본격화, 상품권보증보험 등의 보험료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2,391억원을 나타냄.
- FY2005 2/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였음.
- 선박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 성장한 반면, 적하보험 -10.8%, 항공보험 -5.9%, 운송보험 -22.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3.2% 성장한 751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 수요의 종합보험 이전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참조위험률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FY2005 2/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2.9% 성장한 5,744억원을 나타내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종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종합보험은 7.5% 성장하였으며, 기술보험은 10.5%, 상해보험 61.1%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반면에, 책임보험은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는 -6.7%, 누적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는 -2.0%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763	664	825	685	2,937	794	751
	성장률	-7.5	-12.8	-6.4	-1.0	-7.1	4.1	13.2
	구성비	1.4	1.2	1.3	21.2	1.3	1.3	1.2
해 상	보험료	1,263	1,410	1,263	1,135	5,071	1,399	1,412
	성장률	-9.5	1.8	9.7	-13.3	-3.2	10.7	0.2
	구성비	2.3	2.5	2.0	2.0	2.2	2.3	2.3
자동차	보험료	20,851	21,528	21,991	20,838	85,208	21,386	22,062
	성장률	10.1	4.2	8.3	5.8	7.0	2.6	2.5
	구성비	37.4	37.7	35.3	36.4	36.7	34.9	35.5
보 증	보험료	2,353	2,179	2,218	2,268	9,018	2,255	2,391
	성장률	-2.9	-3.6	-1.8	-8.3	-4.3	-4.2	9.7
	구성비	4.2	3.8	3.6	4.0	3.9	3.7	3.9
특 종	보험료	5,083	5,088	5,691	4,507	20,369	5,745	5,744
	성장률	11.8	14.2	10.7	14.6	12.7	13.0	12.9
	구성비	9.1	8.9	9.1	7.9	8.8	9.4	9.3
해외 원보험	보험료	208	214	188	186	796	129	143
	성장률	51.9	38.4	15.3	7.0	26.7	-37.8	-33.0
	구성비	0.4	0.4	0.3	0.3	0.3	0.2	0.2
장 기	보험료	22,795	23,553	24,710	25,295	96,353	26,459	27,435
	성장률	9.2	12.2	13.3	14.3	12.3	16.1	16.5
	구성비	40.9	41.3	39.7	44.2	41.5	43.2	44.2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6	1,680	1,695	1,679	6,799	1,684	1,715
	성장률	2.5	-1.5	-1.3	-3.9	-1.1	-3.5	2.1
	구성비	3.1	2.9	2.7	2.9	2.9	2.8	2.8
퇴 직 보 험	보험료	686	715	3,642	579	5,622	1,383	410
	성장률	113.2	84.3	4.4	-22.9	13.6	101.8	-42.7
	구성비	1.2	1.3	5.9	1.0	2.4	2.3	0.7
계	보험료	55,748	57,031	62,222	57,172	232,173	61,236	62,063
	성장률	9.0	8.1	9.3	8.1	8.6	9.8	8.8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와 온라인 전 업사를 제외한 일반 중소형사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71.6%를 나타내었고, 온라인 단종보험사는 전년동기 시장점유율 1.9%에서 2.3%로 증가한 반면, 일반 중소형사의 경우 21.9%에서 21.0%로 0.9%p 감소하였음.
 -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하였고, 외국사는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대형사간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감소하고 온라인 단종보험사, 외국사 등의 점유율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낮은 0.1581을 나타냄.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점유비	상위4개사	71.0	71.1	71.1	71.1	71.1	71.8	71.6
	일반사 계	94.7	94.8	94.9	94.8	94.8	95.0	94.9
	전 업 사	4.3	4.1	4.0	4.0	4.0	3.8	3.8
	외 국 사	1.0	1.1	1.2	1.2	1.2	1.2	1.3
허 핀 달 지 수		0.1588	0.1595	0.1588	0.1583	0.1583	0.1583	0.1581

주: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영업 및 기타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9,687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흑자폭이 증가하여 444억원 흑자를 시현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9,446억원을 나타냄.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이익은 2,181억원 적자를,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55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49,897	101,551	154,488	208,597	55,353	112,337
	투자영업	5,736	12,308	19,292	25,320	5,444	12,166
	기 타	1,119	2,273	6,547	7,632	2,009	3,209
	계	56,751	116,132	180,328	241,549	62,805	127,712
총 비 용	보험영업	49,719	101,688	155,279	212,285	54,480	111,893
	투자영업	2,175	3,453	4,654	5,841	1,385	2,720
	기 타	1,276	2,614	8,324	9,706	2,376	3,412
	계	53,170	107,755	168,257	227,833	58,241	118,024
수 지 차	보험영업	178	-137	-791	-3,689	872	444
	투자영업	3,561	8,855	14,638	19,479	4,059	9,446
	기 타	-157	-340	-1,777	-2,074	-367	-202
	계	3,581	8,377	12,070	13,717	4,564	9,687
법 인 세		665	1,426	2,071	2,323	801	1,755
당기순이익		2,916	6,952	10,000	11,394	3,763	7,932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7%p 감소한 98.5%를 기록함.

○ 합산비율 개선은 손해율 및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7%p, 0.1%p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임.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75.9%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에서 전년동기대비 손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손해율	화재보험	52.7	58.8	54.8	56.4	38.8	42.8
	해상보험	61.3	51.3	49.3	49.5	42.8	50.3
	자동차보험	71.6	72.3	72.7	72.7	71.5	73.0
	보증보험	46.6	27.6	21.9	25.3	27.9	10.7
	특종보험	43.1	47.4	46.5	52.0	40.3	47.0
	해외원보험	13.2	44.3	49.4	41.0	29.1	43.3
	장기보험	85.9	86.6	87.1	87.9	85.6	85.6
	개인연금	117.9	118.4	118.1	123.8	117.6	118.7
전 체		76.1	76.6	76.6	77.7	75.3	75.9
사업비율		21.8	22.7	23.0	23.1	22.1	22.6
합산비율		97.9	99.2	99.6	100.8	97.4	98.5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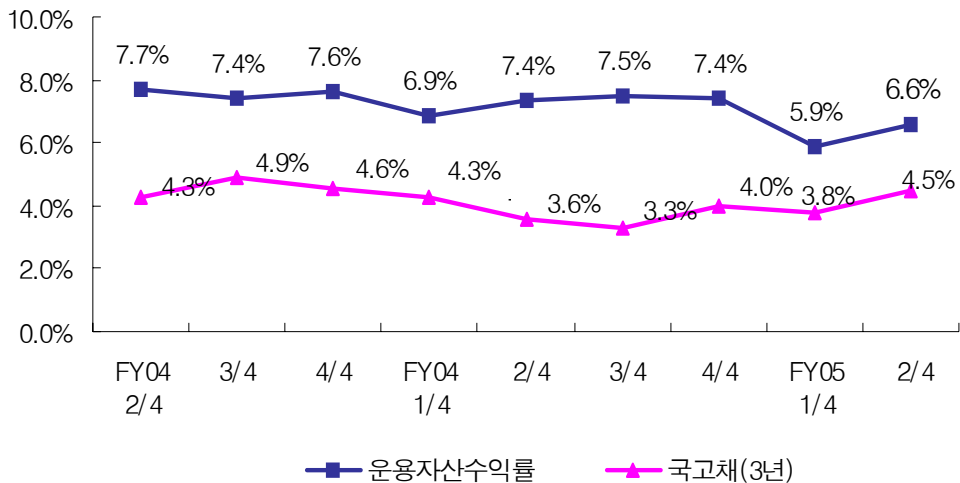
〈자산 운용〉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6.6%를 나타내었으나, 전 분기보다는 0.5%p 증가하였음.

○ 단기매매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익률이 다소 감소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한 9.7%를 나타내었고,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0.4%p 감소한 7.9%를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8%p 증가한 34.9%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소폭 확대되어 6.9%를 기록하고 있음.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17.6%, 부동산은 0.6%p 감소한 7.7%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7	3.8	4.9	3.7	4.4	4.0	4.0	5.9	4.3	3.7
유 가 증 권	54.9	8.1	55.1	8.3	55.3	8.1	55.9	5.9	56.5	6.8
○단기매매증권	14.4	8.3	13.8	9.1	12.4	8.9	12.2	6.9	9.5	9.7
- 주 식	0.5	32.8	0.6	28.2	0.5	31.5	0.6	44.7	0.7	82.2
- 채 권 등	8.3	8.5	7.4	10.6	7.2	9.7	11.6	5.7	5.7	7.2
- 수익증권	5.6	4.9	5.8	4.7	4.7	4.7	0.1	4.3	3.2	4.5
○매도가능증권	37.1	7.9	38.0	7.7	39.5	7.5	40.0	5.5	43.2	6.0
- 주 식	5.4	11.7	5.5	8.5	5.8	9.9	5.7	5.2	6.9	8.0
- 채 권 등	31.2	7.2	31.9	7.6	33.1	7.1	33.3	5.6	34.9	12.6
- 수익증권	0.4	-1.3	0.6	0.1	0.6	6.0	0.9	2.0	1.4	9.6
○만기보유증권	2.9	7.1	2.8	9.9	2.9	9.1	3.1	5.9	3.2	5.8
- 채 권 등	2.9	7.1	2.8	9.9	2.9	9.1	3.1	5.9	3.2	5.8
○투자주식 ¹⁾	0.5	26.1	0.5	21.3	0.5	24.8	0.6	34.3	0.6	18.6
대 출 채 권	18.4	8.3	18.0	8.4	18.3	8.3	18.0	7.9	17.6	7.9
부 동 산	8.3	2.7	8.1	2.7	8.1	2.9	7.9	2.6	7.7	3.1
운 용 자 산 계	86.2	7.4	86.1	7.5	86.1	7.4	85.7	5.9	86.1	6.6
비 운 용 자 산	13.8	-	13.9	-	13.9	-	14.3	-	13.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6.7)	6.5 -	100.0 (96.2)	6.7 -	100.0 (96.4)	6.6 -	100.0 (96.6)	5.1 -	100.0 (96.7)	5.7 -
특 별 계 정 자 산	3.3	-	3.8	-	3.6	-	3.4	-	3.4	-
총 자 산	100.0	6.3	100.0	6.5	100.0	6.3	100.0	4.9	100.0	5.5

주: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5 2/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카슈랑스 비중은 장기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에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5%p 증가한 3.1%를 나타냄.
- FY2005 이후 온라인 채널로 거수된 보험료가 회사직급채널 실적에 포함됨에 따라 2/4분기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다소 확대된 12.0%를 보이고 있음.
- 보험설계사는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 대리점은 2.3%p 감소하는 등 전통 채널을 통한 보험료 비중은 정체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회사직급	4,788	9,627	14,500	18,559	6,845	14,617
	8.7	8.6	8.5	8.2	11.4	12.0
보험설계사	19,769	39,889	60,254	80,439	20,929	43,592
	35.9	35.8	35.5	35.5	35.0	35.9
대 리 점	27,551	55,335	84,414	112,552	29,157	57,563
	50.0	49.7	49.7	49.7	48.7	47.4
중개사	486	990	1,700	2,123	766	1,302
	0.9	0.9	1.0	0.9	1.3	1.1
T/M	1,061	2,361	3,848	5,445	-	-
	1.9	2.1	2.3	2.4	-	-
C/M	273	642	1,029	1,426	-	-
	0.5	0.6	0.6	0.6	-	-
방카슈랑스	718	1,759	3,099	4,538	1,801	3,806
	1.3	1.6	1.8	2.0	3.0	3.1
공동인수	416	776	1,115	1,468	329	626
	0.8	0.7	0.7	0.6	0.5	0.5

주: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5 2/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은 전 모집조직에 있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설계사 조직의 축소 및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하였고, 대리점 생산성은 대리점수 축소에 기인하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의 경우 온라인 채널 실적이 포함되면서 전년동기보다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1,204	21,489	21,731	22,026	24,738	22,223
	22,580.3	44,800.0	66,727.1	84,260.5	27,669.0	65,774.4
보험설계사	62,356	63,759	65,488	61,539	63,818	59,739
	31,702.7	62,561.5	92,007.4	130,711.7	32,795.0	72,970.3
대 리 점	48,352	47,479	46,615	45,953	45,785	43,193
	56,980.5	116,546.9	181,087.5	244,928.2	63,682.9	133,270.1

주: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발표

<개요>

금감원,
퇴직연금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

- ☐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연금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음.
- 퇴직연금자산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의 범위와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또는 원리금보장 상품 취급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둠.

<주요내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을
제정

-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으로 연금계리·전산·운용 전문인력 및 전산기기·설치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위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를 투자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투자적격 채권과 국내외 상장주식 및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하였음.

<표 1> 적립금 운용기관과 운용대상 유가증권

적립금 운용기관과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를 규정	적립금 운용기관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종류
	투자적격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	국채, 지방채, 국내·국외(OECD국가) 투자적격 채권
		국내 상장 주식, 금융감독원이 정한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 신탁회사,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수익증권 - 투자적격 기업어음, 파생상품펀드, 주가연계증권(최대손실40%이내) 등

보수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투자한도를
설정

- 투자한도 설정에 있어서는 퇴직연금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나 신용위험이 큰 유가증권을 위험자산으로 정의하였고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였음.
-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주식형수익증권 등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대해 적립금의 30% 이내, 혼합형수익증권·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해 40%의 투자한도를 설정함.
 - 확정기여형의 경우 외국유가증권에 대해 30% 이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 및 계열회사 채권 등에 대해 각각 30% 및 10%의 투자한도를 설정함.
- 주식, 주식형·혼합형수익증권 투자는 금지하였음.

퇴직연금사업
자의 약관보고
공시,
업무보고서
제출 등의
감독기준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보고, 공시,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의 책무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였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10영업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수익률, 수수료, 약관 등)을 인터넷으로 공시하여야 함.

-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는 적격 국내·국외 신용평가기관의 범위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3개사)과 국외 신용평가기관(4개사)으로 설정하였음.
- 금감원은 금번 감독규정 제정과 더불어 퇴직연금 안내사이트를 구축하여 금융이용자에게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약관심사 등 준비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최원 연구원)

2.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감독 규정 개정

<추진배경>

금감위는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관련
신탁업감독규정
등을 개정

□ 금감위는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내용 및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경영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경영인가시에 적정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신탁회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유·신탁부문간 거래와 계열회사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을 제한하였음.

* 수탁자가 오로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 자기이익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

<신탁업 인가지침 개정 내용>

① 경영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심사기준 마련

신탁업 인가시
재무건전성
심사기준을
강화

□ 신탁업 인가시 사업계획 심사항목으로 적정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유지 요건 등을 추가함.

- 적정한 재무상태는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임.

*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임.

② 주요 출자요건 완화

주요 출자요건의
완화

□ 일정한 자기자본과 재무비율을 충족하는 신탁업 경영인가 신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요 출자자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요건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2,500억원과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인 경우, 보험사는 자기자본 1,000억원과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경우 배제가 가능함.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내용〉

① 고유 신탁부문간 이해상충방지

고유 부분과
신탁부문 간에
이해상충 방지
방안 추가

- ☐ 고유부분과 신탁부문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신탁자금 운용시 고 유부분의 유가증권 중개를 금지하였음.
- 단, 3억원 이상 거액 특정금전신탁 또는 장내거래주식으로 운용 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 ☐ 신탁자금으로 고유부분 보유 유가증권의 매입을 제한하되 중개목 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과 고객이 구체적 투자대상을 서면 지정 하는 경우는 허용하였음.
- ☐ 신탁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한도를 계좌별 수탁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하였음.
- 단, 고객이 서면에 의해 구체적으로 운용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에는 제외함.
- ☐ 불건전 영업행위 범위 확대를 위하여 고유부분의 영업 및 자금 지 원 행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을 통한 제한업무 우회행위, 특별이익 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시켰음.

② 기타 감독제도 정비

- ☐ 신탁경영증권 또는 보험회사가 신탁의무 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연간 공탁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2,500 분의 1로 경감하였음.

**신탁경영 관련
감독제도 정비**

- ☐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8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연금형불특정금전신탁의 보수율을 자율화하였음.
- ☐ 특정금전신탁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 및 계좌별 수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신탁겸영은행이 신탁자금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 신탁자금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기관 예금을 외국통화신탁자금으로 한정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였음.

(최원 연구원)

3. 제5회 경험생명표 발표

제 5회

경험생명표 등 참조준보험요율 의 시행

□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통하여 제5회 경험생명표 등 생명보험 참조준보험요율의 개정작업을 완료함.

-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과거 경험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참조준보험요율을 작성하였음.
-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낮아져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하락이 예상되나, 입원, 수술등 치료보장위주의 질병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상승될 전망이다.
- 제5회 경험생명표 등 참조준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 보험료를 제시하고 보험사의 적정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계약자의 평균수명은 남자 76.4세, 여자 84.4세로 제4회 경험생명표에 비해 각각 3.6세 및 2.7세 증가하였음.

사망보험의 보험료 하락, 질병상품 보험료 상승 예상

□ 사망률은 제4회 경험생명표에 비해 남자의 경우 19%, 여자는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질병 및 재해 입원적용률은 남자 16%, 여자 25% 증가하였으며, 암 발생률은 각각 3%, 18%로 치료관련 위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제5회 경험생명표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대상통계	2000년~2002년 보유계약 및 사망통계	
성 별	남자	여자
사 망 륜	19%감소	16%감소
평균수명	72.8세 →76.4세	81.7세 →84.4세
적용시기	2005년 12월부터 신규상품 개발 및 현재판매중인 상품의 변경 시 적용되며, 2006년 4월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	

주: 제4회 경험생명표 대비 증감임.

(최원 연구원)

4.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개별약관 개선

2006.1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
험 개별약관
개선 적용

-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개별약관 내용을 개선, 2006년 1월부터 적용하였음.
- 장기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 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보상하도록 하는 등 개별약관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되었음.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중 암에 대한
부담보기간
폐지

- 어린이보험 부담보기간 폐지 : 어린이보험 중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암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시부터 보장하도록 개선함.
- 현재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개시일로부터 90일간 보장하지 않도록 부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어린이보험의 경우 위험률이 낮아 역선택 우려가 있거나 역선택으로 인한 사차손이 크다는 근거가 없고, 고지의무 등을 통해 역선택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보기간을 폐지함.

CI 및 간병
보장보험의
부담보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에게
취소권 부여

- 부담보기간 중 보험사고 시 계약자에게 취소권 부여 : CI 및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 중 부담보기간이 설정된 보험에 대해서 부담보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시 현행 암보험과 동일하게 계약자에 취소권을 부여하여 계약의 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행 CI 및 간병보험에서는 부담보기간 중 특정질병 진단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향후 해당 질병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계약자가 보상이 제한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장기손해보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 확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된 경우 사고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하도록 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된 경우 보상으로 개선함.
- 현행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만 보장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함.
-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개선됨.

**고도후유장
해보험금
지급회수
제한을 폐지,
회수에
관계없이
보장**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회수제한 폐지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시 지급회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 보험년도 내에 고도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회수에 관계없이 보장함.
- 현행 약관에서는 일정 지급률(예 :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사고를 “고도후유장해사고”로 규정하여 별도 보장하고 있으며, 동일 보험년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회수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위험률은 매사고시마다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개선한 것임.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자의
혼란을 방지**

- 보장범위의 명확화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단서조항에 기술된 보장내역을 「보상하는 손해」에 구체화함으로써 약관내용을 명확화하여 계약자의 혼란을 방지함.
 -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통원의료비 지급 시 치과병·의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보장이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장범위에 혼란을 초래하였음.
 -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 통원치료는 의료비지급대상에서 제외되 예외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 시에는 의치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도록 개선함.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수술보험금
지급, 동시에
시술받은
수술도
별도로 보장**

-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수술보험금 보장 : 입·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수술여부를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동시에 시술받은 수술이라도 개별적으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현행 약관에서는 수술보험금 지급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후 당일 퇴원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또한, 피보험자가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 하나의 수술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술보험금 산출시 위험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동시수술을 1회로 한정함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조혜원 선임연구원)

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2006.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적용

-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06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부상위자료
및
기타손해배
상금
인상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부상 위자료 및 기타손해배상금 인상
- 「대인배상」·「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보험금 중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이 낮아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부상위자료(5~14급)를 현행 대비 11%~79%, 기타손해배상금을 13%~60% 인상함.

<표 1> 부상위자료 변경내역

(단위 : 만원, %)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인상률		현행	개정안	인상률
1	200	좌동	5	42	75	79	9	21	25	19
2	176	"	6	36	50	39	10	18	20	11
3	152	"	7	30	40	33	11	15	20	33
4	128	"	8	24	30	25	12	12	15	25
							13	9	15	67
							14	9	15	67

<표 2> 기타손해배상금 변경내역

구분	현행	개정안	인상률
입원치료시(식대)	1일당 11,580원	1일당 13,110원	13%
통원치료시(교통비)	1일당 5,000원	1일당 8,000원	60%

주: 식대의 경우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

□ 후유장해 위자료

- 「대인배상」·「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노동능력 상실을 5% 미만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 지급근거가 없어 노동능력 상실을 5% 미만시 위자료 지급근거(50만원)를 신설함.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교통사고로 출고후 2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현재 「대물배상」담보에서는 출고후 1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여 수리비용의 10%를 추가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과오납보험료 및 이자 환급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토록 개선함.
- 현재는 약관에 명문의 규정없이 원금만 환급하고 있음.

상속자가 아닌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보험수익자 지정제도 도입〉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산재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정비〉

-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고용주)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으로 보상가능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담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대인배상Ⅱ」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음.

〈기타 약관조항 정비〉

- 「대인배상」 ·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개선함.
- 취업가능연령 계산 시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감안함.
- 「대인배상 I」 담보가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명확화함.
- 「대물배상」 담보에서 사업용자동차의 휴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함.
- 휴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일람표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함.

(조혜원 선임연구원)

6.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실태 및 조사결과

〈조사목적 및 내용〉

금감원,
'05.5~10월까지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를 실시

□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

○ 자동차 도난사고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도난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 결합 의심건*, 허위 도난 사고 의심건**, 기타 도난차량 불법 수출 의심건에 대하여 '0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차량전문 절도단이 보험회사에서 매각처리하는 사고 잔존물 차량을 헐 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하여 차대번호각자를 변조하여 일 반에 유통시키는 행위

** 실제로는 차량을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조사결과〉

도난차량 328대
적발, 106대
회수, 110여명
사범 처리

□ 조사결과 도난차량 328대, 82억 5천만원 상당을 적발하였고 이 가운데 106대, 27억4천만원 상당을 회수하였음.

□ 수사기관에서는 자동차 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유통책 등 전문 절도단 110여명을 검거하여 사범처리 하였음.

<표 1> 자동차 도난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 도	FY'00	FY'01	FY'02	FY'03	FY'04
도난건수(a)	2,405	2,169	1,840	2,489	2,342
도난보험금(A)	166	202	181	262	252
자차 사고건수(b)	905,749	976,615	1,284,507	1,462,839	1,405,388
자차보험금(B)	7,513	8,014	10,518	12,856	11,719
구성비(a/b)	0.27	0.22	0.14	0.17	0.17
구성비(A/B)	2.21	2.52	1.72	2.04	2.15
평균도난보험금	689만원	933만원	982만원	1,054만원	1,078만원
평균전손보험금	167만원	189만원	224만원	323만원	248만원

주: 평균전손보험금에 도난보험금은 미포함.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향후 계획>

‘폐차말소’ 등의
잔존물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중고차사고이력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

- ☐ 조사결과 보험회사에서 매각 처리하는 교통사고 차량 잔존물이 자동차 전문절도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지대책이 요구됨.
- 향후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생가치가 없는 잔존물은 ‘폐차말소’하는 등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임.
-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중고차사고이력정보시스템’*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중고자동차의 보험사고이력(전손, 도난, 침수)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조회결과 과거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차량수리 흔적이 없는 경우 도난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

- ☐ 자동차 도난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도난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다.

(최원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미국동향

<미국, 기업연금제도 동향>

미국,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 미국은 일찍이 다양한 기업연금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나 필요에 따라 발전되어 온 관계로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회차원의 연금법이 도입되고 있음.
- DB형제도에 있어 일련의 기업들의 기업연금 과부족상태에서의 파산과 이전의 누적된 기금부족에 따른 퇴직연금지급보증기구(PBGC)의 보험료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함.
- 또한 DC형제도 즉, 401(k)제도도 다수의 기금이 종업원에 자산 운영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하여 엔론같은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됨.

① DB형 제도의 개선 - PBGC의 보험료인상

PBGC의
기금과부족문
제를
해결하기위한
법안 마련

- ☐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발의된 것이 통합된 퇴직연금법안(Pension bill)의 통과가 지연되었음.
- 9월초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의 파산 신청 그리고 이에 이은 델파이사의 파산 신청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의원들이 긴박성을 인식함.
-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200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과하는 보험료의 인상, 퇴직연금적립방식의 개정, 현금잔고퇴직연금제도(cash balance pension plan)의 합법성에 대한 명료화 등임.

- 현금잔고퇴직연금제도는 하이브리드 연금제도(hybrid pension plan)의 일종임.

현금잔고퇴직연금제도는 DB형으로 분류됨.

-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를 혼합한 제도로서, 전통적인 DB형이나 DC형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여 기업주의 목표를 탄력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주로 활용하여 왔음.
- 다양한 유형의 하이브리드제도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 세법상 모든 하이브리드 제도를 DB제도나 DC제도로 분류됨.
- 현금잔고퇴직제도는 확정급여형제도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기업주가 지급하는 각출금액이 특정한 공식에 의해 정해지고, 이 공식은 확정이자율을 사용하며, 궁극적으로 이 공식에 의해 퇴직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임.

-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고용주들은 법안상의 엄격한 연금기초율에 반대

- 왜냐하면 연금제도재정을 충실화할 시간적 여유(3년을 주지만 기업들은 적어도 10년 요구)를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연금부채를 계산하는데 너무 엄격한 이자율 기준(투자등급회사채에 연동된 직전 12개월 평균이자율, 기업들은 3년 평균이자율 주장)을 가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불해야 하는 PBGC 보험료에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PBGC의
적자지속을
판단

- 또한 기존의 현금잔고연금제도에 대한 소송에 대해 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퇴직연금전문가들은 법안이 PBGC의 적자 행진을 멈추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자료: Pensions&Investments 및 Forbes 등

② DC형 제도- 401(k)의 문제와 개선

401(k)관련
기업들의
남용으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

- 거의 4년이 경과한 엔론의 파산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회사부담금으로 기여한 자사주가 휴지조각이 됨에 따라 401(k) 가입자의 퇴직저축이 상실된 것으로도 유명함.
- 기업들이 401(k)를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2001년 이후 근로자와 노동부가 제기한 소송이 12,800건에 달함.
- 조사에 의하면 400,000개의 401(k) 플랜 중 테크놀로지 주식에 집중한 뮤추얼펀드와 자사주에 주로 투자한 플랜의 경우 IT 거품이 꺼진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약 45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에서 401(k)를 제공하는 기업은 404(c) 조항을 택함으로써 법적으로 투자리스크를 종업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를 결정한다 하여 이런 플랜은 가입자 지시 플랜(participant directed)이라 불리움.

투자리스크가
종업원에
전가되지 않은
제도도 다수
존재

- 이런 방식으로 401(k)를 채택한 기업의 약 2/3가 법적 책임을 종업원에게 이전했지만, 여전히 2,500만명의 가입자를 갖는 약 30만개의 플랜은 법적인 측면에서 투자 책임이 종업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엔론은 바로 이 그룹에 속했음.

□ 바로 이런 법적 이유로 엔론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종업원들은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지만 8,500만 달러의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 한편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방화벽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기업이 404(c) 조항을 택했다 할지라도, 종업원이 연금제도의 결정에 완전히 통보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있음.

퇴직연금법안
은 401(k)의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됨.

□ 상정된 퇴직연금법안(Pension bill)에는 엔론 파산으로 엔론 퇴직 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저축은 전부 상실된 바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됨.

- 즉, 401(k) 플랜의 가입자들은 3년 보유하면 기업이 기여한 자사주를 매도할 수 있게 함.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세부터 67세까지 노후준비를 위해 세전 소득의 15%를 적어도 저축해야 하고, 40세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면 25%를 저축해야 함.

□ 부시정부는 지난 3년간 소위 '평생저축구좌(lifetime savings account)'를 도입코자 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도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부족하여, 이는 기존의 401(k)와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임.

자료: Wasik, John F., "Suing employer one way to redress a flawed 401(k)", Bloomberg.com, 2005.11.15.

(김진익 선임연구원)

<미국, 대형 자연재해와 인재 속의 미국 손해보험산업>

대형
자연재해가
손해보험산업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독일의 Munich Re와 재보험사인 GenRe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의 Berkshire Hathaway의 최근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 발발이 미국 손해보험업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의미함.

○ 2005년 11월 현재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Munich Re는 가까스로 이익을 낼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조차도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을 자산운용수익에서 상쇄한 것임.

○ Berkshire Hathaway는 허리케인에 따른 손실로 인해 2005년 3/4분기 이익이 5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대형 자연재해와 9.11테러와 같은 인재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가장 실적이 나빴던 해는 2000년과 2001년이었으며, 이러한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2001년 9.11테러 발생으로 인한 약 350억달러의 지급보험금을 들 수 있음.

□ 이후 부적절한 요율을 인상하고 언더라이팅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손해보험업계의 실적은 급격히 상승함.

○ 1979년부터 2003년까지의 손해보험업계의 누적 보험영업손실은 약 4,590달러에 달했음.

620억달러의
이익이
예상되었으나
카트리나로
인해 예상이
무너짐

○ 2004년에는 26년만에 처음으로 50억달러의 보험영업이익을 달성하였음.

□ 2005년에는 620억달러의 이익이 예상될 정도로 20년만에 최고의 실적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카트리나로 인해 이러한 예상이 무너지게 되었음.

- 예상된 ROE는 평균 15.3%로서, 이는 Fortune 500대기업의 평균보다 1%가량 높은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성과에 해당함.
- 그러나 카트리나가 발생한 이후 Berkshire, Swiss Re, Hannover Re 등의 회사가 특히 타격을 심하게 받았음.
- 심지어 Rosemont Re의 경우 보험영업 자체를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은
67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한 지급보험금 예측은 다양하나 약 67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I.I.I.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카트리나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예측하였으며, Eqecat 140~220억달러, AIR 260~340억달러, ISO/PCS 344억달러, Tillinghast 400~550억달러, RMS 400~600억달러로 각각 예상한 바 있음.
- 추가적인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손해보험산업은 2006년 이후 건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일 정도로 자연재해가 손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자료: www.marketwatch.com

Hartwig, Robert P., *Hurricane season of 2005: Impacts on US P/C Insurance markets in 2006 & beyond*,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December 7, 2005.

(최영목 부연구위원)

2. EU 동향

<영국, 온라인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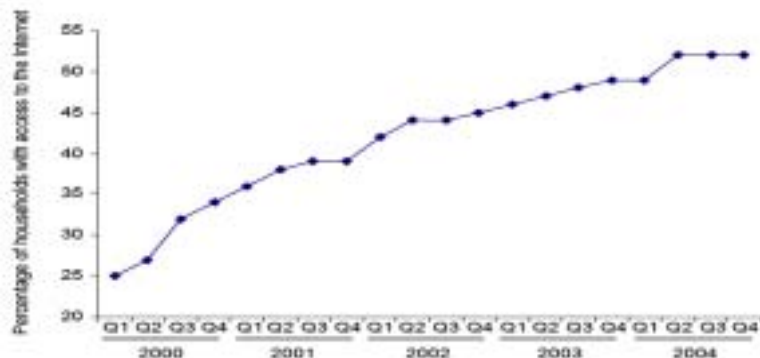
① 영국의 인터넷 사용 규모

지난 6년
동안의 영국
인터넷
사용률이 크게
증가

- 영국은 지난 6년 동안 가정용 인터넷 접속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간에 온라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가속화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영국의 가정용 인터넷 접속 인구는 1998년 220만명(영국성인 인구의 9%)에서 2004년 1,260만명(영국성인 인구의 52%)로 증가하였음.
- 계층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저연령 인구가 고연령 인구보다 인터넷 사용률이 높았으며 고소득 계층일수록 더욱 세분화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을 하는 인구 중에 상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한 비중은 2001년 약 30%에서 2003년에는 약 50%로 증가하였음.

<그림 1> 영국 인터넷 이용

(단위 : %)



자료 : Datamonitor, "UK Online insurance", 2005.

* 여기서 온라인 보험은 '인터넷 판매 보험'에 국한하여 논의함.

영국의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는
증가 추세

② 온라인을 통한 보험 판매

- ☐ 보험은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금융 상품이며, 특히 자동차 보험과 같이 규격화되어진 상품의 경우에는 더욱 접근이 용이함.
- ☐ 2004년 영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음.
- ☐ 영국은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두 배 증가하였음(6%→12%).
 - 가계보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2001년의 1%에서 2005년 6%로 상승하였음.

③ 온라인 판매채널의 극대화

- ☐ 온라인 검색 시스템의 용이성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함.
 -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정보 검색 이용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검색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이 보험 상품의 판매 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온라인을 통한 예상보험료 산출 시스템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잠재 고객에게 가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온라인 자동차 보험과 가계보험에 대한 온라인 가격 산출 시스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 보험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온라인 보험료 검색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는 잠재고객에게 신속함과 용이성을 제공함.

- 보험 전문 인터넷 사이트는 보험 상품 판매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보험 전문 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보험상품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영국의 많은 보험사들은 온라인 보험 판매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낮은 비용을 통한 보험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보험은 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보험사가 증가할 전망이다.

④ 온라인 판매채널의 한계

- 몇몇 보험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존재함.
 - 민간의료보험의 경우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보장의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판매에 어려움이 존재함.
- 온라인을 접속하거나 접속이 용이한 특정 계층에만 판매가 가능함.
 - 온라인 이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 계층과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함.
 - 장기적으로 온라인 접속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고연령 계층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한계점은 극복될 것으로 전망됨.
- 온라인을 통하여 보험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보험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가입자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보험회사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온라인 보험
판매의 경우
판매채널의
특성상
한계점이
존재

- 온라인 보험의 강점인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경쟁적인 저렴한 상품의 출현은 다른 상품으로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번 가입한 소비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보험을 구입하고자 하는 잠재고객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구매에 집결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판매채널을 통하여 구매를 완성하는 경우가 존재함.

⑤ 온라인 판매의 향후 전망

- 영국의 온라인 판매채널의 성장세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보험을 구매하고자 하는 잠재고객은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온라인 판매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향후 영국의
온라인 보험
판매는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인터넷의 인프라 확장을 통한 이용률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 구매의 안전성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도 확장은 온라인을 통한 보험 판매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

- 향후 2년간 가계보험의 판매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 채널이 눈에 띄는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 가계보험의 잠재성장 여력은 충분한 수준이며, 자동차 보험 온라인 판매의 급속한 성장의 뒤를 이어 가계보험 온라인 판매의 향후 2년간 급속한 성장이 예상함.

- 온라인 판매 채널은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덜 정형화 되고 더욱 복잡한 보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보장이 존재하고 약관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이 큰 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매개체로 한 상품 판매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점유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자료 : DATAMONITOR, *UK Online Insurance 2005*, 2005.11.

(최원 연구원)

<영국, 방카슈랑스 >

① 영국 상품 시장

2004년 영국의
생명보험
시장은 최근
저성장
추세에서
회복세로 반전

- 2004년 영국의 생명보험 시장은 연금시장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남.
 - 2004년 일시납 보험 시장의 큰 회복세는 2003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킴.
 - 2004년 저축성 상품은 최근 10년 동안의 부진을 벗어나 처음으로 상승함.
 - 연금시장에서는 일시납 보험이 느린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비일시납 보험의 우세가 계속됨.
 - 투자신탁과 회사형 투자신탁 시장은 최근 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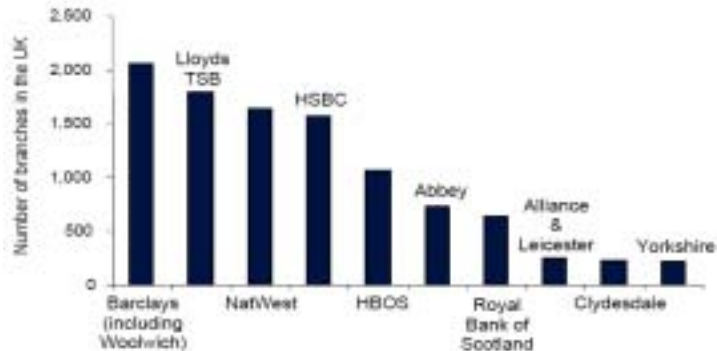
② 판매 채널 현황

- 2004년 영국의 생명보험과 연금상품 판매에 있어서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채널을 제외한 판매채널 가운데 은행이 주요 위치를 확고히 하였음.
 - 2004년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 판매는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했던 2002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명보험 시장의 비일시납 보험 판매는 담보대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소폭 향상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연금시장의 비일시납 보험 판매는 2001년 큰 폭의 상승 후 계속적인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년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시납 보험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생명보험 관련 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은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투자신탁, 회사형 투자신탁, PEP 금융상품 판매의 감소로 인하여 상승하였음.

③ 방카슈랑스 판매채널

- 2004년 Barclays 그룹은 영국의 다른 은행이나 주택조합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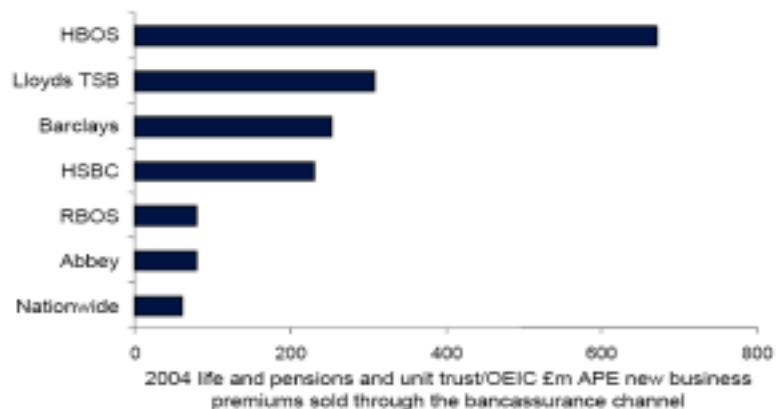
<그림 1> 2004년 영국 방카슈랑스 보유 지점 현황



자료 : Datamonitor, "UK Bancassurance 2005", 2005.

- 15개의 대형 지점만을 유지한 HBOS 그룹은 2004년 방카슈랑스 신계약 판매에 있어서 경쟁사들에 비해 54% 높은 판매를 기록함.

<그림 2> 2004년 영국 방카슈랑스 신계약 판매 현황



자료 : Datamonitor, "UK Bancassurance 2005", 2005.

판매채널의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4가지 요인
분석 실시

④ 방카슈랑스 트렌드 변화

- Datamonitor는 판매채널의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제도, 기술, 공급자, 소비자로 정의하고 이 요인들에 대한 변화 전망을 제시하였음.
- 탈편중화(Depolarization) 제도는 영국의 금융서비스 판매 채널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06년 4월 6일 시행 예정인 연금 관련 감독체제는 연금의 규제환경을 더욱 간소화시키고 연금저축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 온라인의 발전과 STP*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보험 공급자가 더욱 빠르게 상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보험 판매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공급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판매채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탈편중화(Depolarization)는 공급자들 간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판매채널과 소비자의 관계가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며 소비자는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반응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는 소비자가 최종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금융권 transaction 기반 기술을 자동화해 주는 것을 말함.

⑤ 향후 전망

Datamonitor
2009년까지
향후
생명보험시장
전망 제시

- Datamonitor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신계약 판매에 있어서 일시납보험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비일시납 보험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보험시장이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연금보험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24.2% 성장이 예상되며 다른 종목에 비하여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비일시납 보험만이 200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시납 보험과 연금보험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06년 4월 6일 시행 예정인 연금 관련 감독체제 등의 제도적인 변화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연금보험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음.
- Datamonitor는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채널이 보험 시장에서 주요한 판매 채널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고 방카슈랑스 판매 채널이 2004년에서 2009년 까지 점진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자료 : DATAMONITOR, UK Bancassurance 2005, 2005.10.

(최원 연구원)

3. 일본 동향

<금융청, 보험상품 권유 및 설명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 발표>

금융청,
보험상품 권유
및 설명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 발표

- ☐ 일본 금융청에서는 2005년 12월 27일 계약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지침을 개정, 2006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 ☐ 동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판매·권유시 설명에 대한 중요사항을 명확화하고, 보험상품의 광고표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 개요

- ☐ 보험계약의 판매·권유시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명확화
 - o 보험계약의 판매·권유시에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과 고객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계약개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정보(「주의환기정보」)로 분류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할 항목, 기재방법, 설명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음.
 - o 보험의 경우 판매권유에 관한 고충이 많고 보험상품이 다양화·복잡화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적정 광고 표시 등
 - o 보험상품의 광고표시 등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에서는 광고심사체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부 규정에 책정하고 심사체제의 정비에 관한 유의점을 기재하도록 함.

(2) 세부 개정 내용

- ☐ 감독지침 Ⅱ-3-3-2 (2) 또는 Ⅱ-3-3-6 (2)
 - o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 및 성질 등에 적절하게 부합하여야 함.

**보험계약자에게
계약개요,
주의환기정보로
분류하여
고지할 것을
감독지침내에
신설**

-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경우 고객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계약개요」라 함)와 고객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주의환기정보」라 함)로 분류함.
- 「계약개요」 항목은 상품의 구조, 보장의 내용, 주요 특약 및 내용, 보험기간, 인수조건(보험금액 등),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보험료납입방법 및 기간), 해약환급금 등의 유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됨.
-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투자성상품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의 운용방법, 제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장래 보험금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외화표시 보험의 경우에는 외화환산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외국통화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주의환기정보」의 항목으로는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고지의무 등의 내용, 책임개시기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면책사유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계약의 실효·부활 등, 해약과 해약환급금의 유무 등을 포함해야 함.
- 투자성상품 및 외화표시보험의 주의환기정보는 상기의 「계약개요」에서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감독지침 II-3-5-1-2 (14)

- 「계약개요」, 「주의환기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체제가 정비되어야 함.

**계약개요,
주의환기정보를
서면으로
교부하기 위한
제제 정비**

- 해당 서면에서 고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고충·상담 절차를 명시하고 보험회사와 고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함.
- 해당 서면에 기재된 항목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함.
 - ① 활자를 크게 하거나 기재항목의 배열 등에 있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 ② 기재한 문언의 표시에 있어서 평이하고 명확하게 할 것
 - ③ 고객에게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항목(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할 것
 - ④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량에 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 ⑤ 해당서면은 다른 서면과 분리, 독립된 서면으로 하고, 동일한 서면일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여 중요한 정보임을 명확히 기재할 것
- 고객에게 해당 서면을 교부하면서 서면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등을 구두로 설명하여야 함.
- 고객이 해당 서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함.
-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정보제공 및 설명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수행하여야 함.

- 즉, 우편의 경우에는 해당서면을 함께 동봉하고, 전화로 인한 모집에서는 모집인이 고객에게 구도로 설명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통지하며, 인터넷 등의 경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설명함.
- 단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을 확보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자료: 金融廳, “「保險會社向けの總,合 的な監督指針」の一部改正(案)公表”, 2005.12.27.

(조혜원 선임연구원)

일본,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 검토

<일본,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검토>

-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는 일본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2005년에 들어서면서 재검토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각 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제도가 일원화 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함.

(1)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차이점

-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기초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모든 일본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며, 이에 추가하여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샐러리맨 등은 후생연금에, 공무원 등은 공제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공제연금에는 국가공무원 공제·지방공무원공제·사립학교교직원공제가 있고, 제도별로 다소 상이함.

① 급부구조

공제연금,
職域加算으로
급부 측면에서
우위

- 공제연금에는 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더하여 「職域加算」이 추가됨에 거수된 연금급여가 20%정도 증가함에 따라 후생연금에 비하여 급부 측면에서 유리함.
- 샐러리맨의 경우 기업연금, 즉 후생연금이 있지만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0% 정도(2001년 민간기업퇴직금실태조사)에 불과함.
-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최근 불경기의 영향으로 연금제도의 해약이나 해산, 급부의 감액, 확정각출연금이나 cash balance plan으로의 제도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② 보험료

후생연금이
공제연금보다
높은 보험요율
적용

- 보험료 측면에서도 공제연금보다 후생연금의 요율이 높은 편이며, 요율 인상폭도 큰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후생연금의 보험요율은 14.288%이며, 2004년 연금제도 개정에 의해 매년 0.354% 인상될 예정임.
- 반면에, 공제연금은 職域加算 보험료를 포함하여 국가공무원공제는 14.638%, 지방공무원공제는 13.738%, 사립학교교직원공제는 10.814%이며, 요율 인상폭도 국가공무원공제가 0.129%로 작음.

③ 급부방법

공제연금은
유족연금
수익자 전환
가능,
후생연금은
수급자격
미달시 지급
중지

- 유족연금의 수익자 전환
- 후생연금에서는 연금수익자의 사망이나 자녀가 18세에 도달하지 않는 등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중지되지만, 공제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으로 한정하여 지급이 유지됨.
- 즉, 공제연금은 연금 지급 중에 유족이 수급권리를 상실해도 일정 요건(연령, 소득 등)을 충족할 경우 다른 유족이 지급 권리를 인계할 수 있음.
- 또한 후생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시 55세 이상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공제연금에서는 연령제한이 없음.

후생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

- 보험료납부요건
- 후생연금에서는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유의 발생 전(사망이나 장해 등의 발생 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지만 공제연금에서는 그 요건이 없음.

④ 가입기간의 합산

탈퇴 후
재가입 시,
공제연금은
가입기간 합산
가능

-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모두 중도 탈퇴하는 경우 환급금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공제연금의 경우, 다시 공제연금에 가입할 때 그 일시금을 반환한다면 공제가입기간이 합산되지만 후생연금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⑤ 자산운용

자산운용
측면에서
연금제도별로
상이

- 자산운용에 있어서 분산투자 측면, 배분비율 측면에서 모두 후생연금의 경우가 공제연금보다 투자리스크가 높음.
- 후생연금의 '05년도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국내 채권 52%, 국내주식 21%, 외국채권 12%, 외국 주식 15%, 단기자산 0%임.
- 한편 국가공무원공제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78%, 국내주식 5%, 외국 채권 0%, 외국 주식 5%, 단기자산 3%, 부동산 3%, 대출 6%임.

(2) 연금제도 일원화의 기대효과

연금제도
일원화로
제도간
불공평성 해소

- 공적연금이 일원화된다면 제도간의 불공평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현행의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가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연금 지급상의 실수도 감소하게 되는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직업 변경에 따른 공적연금 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존 연금 변경에 수반되었던 미가입이나 보험료 미납입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직업 변경 시 공적연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나 지급 연금액이 변경되어 생활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연금자산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재정의 안정, 운영, 자산운용 측면에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후생노동성이, 공제연금은 재무성, 총무성, 문부과학성이 소관하고 있음.
- 이를 일원화할 경우 사무비, 인건비, 운용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保険毎日新聞, “厚生年金と共済年金の一元化について”, 2005.10.17.

(조혜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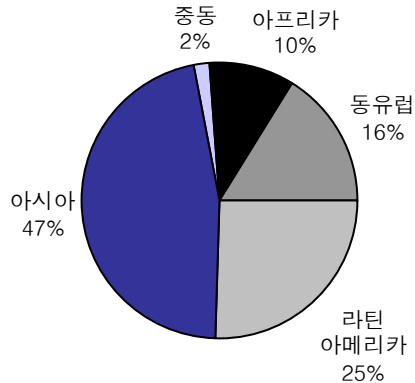
4. 아시아 동향

<아시아, 배상책임보험 시장 동향>

아시아
배상책임보험
시장 빠르게
성장,
신흥시장에서의
가장 높은
점유율 기록

- 아시아 지역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은 전체 신흥시장에서 절반 가
까이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03년 전체 신흥시장에서의 배상책임보험에서 아시아 지역이
약 4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라틴아메리카, 동유
럽, 아프리카의 점유율 순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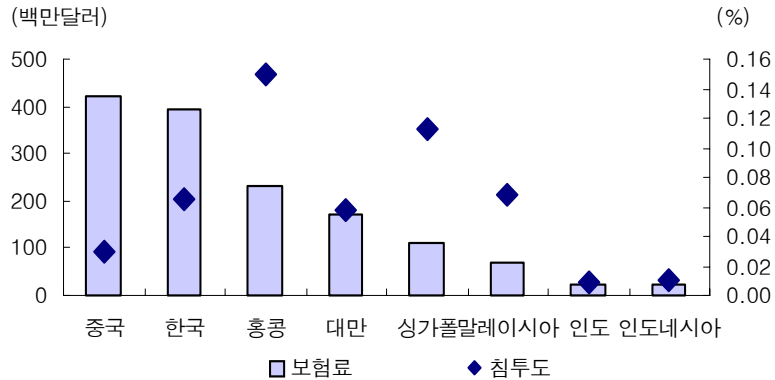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배상책임보험 시장 점유율(2003년)



2003년 아시아
배상책임보험
약 13달러의
보험료 수입

- 아시아 지역의 배상책임보험은 2000년 수입보험료 7억 9천만달
러에서 2003년 13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성장이 가속
화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GDP 대비 0.05% 가량의 침투도를 보이고 있으나,
홍콩(0.15%), 싱가포르(0.12%)의 경우 높은 침투도를 나타냄.

<표 2> 아시아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2003년)



생산물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중심으로
성장 추세

- 대부분의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는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품도 있음.
 - 한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아시아지역의 덜 발달된 소송문화와 동 보험시장이 아직 성장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전체에 비하여 낮은 손해율을 나타내고 있음.
- 아시아 지역 중에서 한국이 배상책임제도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으로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용이하도록 입법부 및 사법부 모두가 최근 규정을 새로 정비하였음.
- 한편, 헬스케어, 제약업 등 높은 소송위험을 수반하는 산업의 급증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인도의 경우 글로벌 과학기술센터로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급성장하고 있음.

- 최근 배상책임 관련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미국에서의 Sarbanes-Oxley(SOX)법의 통과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는 가속화될 것임.
- 조류독감, 음식물 안전 등의 위협으로 관련 배상책임보험이 이 슈화되고 있음.
- 특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Swiss Re, "Insurance in emerging markets : focus on liability Developments", *Sigma* No5/2005, 2005.

(조혜원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4			CY2005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5.5	4.7	3.3	2.7	3.3	4.5
경상수지		7,030	7,098	7,354	5,950	2,757	2,524
수 출		63,975	61,634	68,937	66,812	69,753	71,110
수 입		55,270	54,708	61,688	60,525	63,545	66,093
실업률		3.5	3.6	3.6	4.2	3.7	3.6
금리	국고채(3년)	4.40	3.87	3.41	3.96	3.80	4.60
	회사채(3년)	4.84	4.03	3.72	4.34	4.41	5.00
소비자물가지수		114.2	115.6	115.5	117.0	117.6	118.3
환율	원/달러	1,155.5	1,151.8	1,035.1	1015.5	1,025.40	1041.1
	엔/달러	108.69	110.9	103.76	106.91	110.9	113.3
종합주가지수		785.79	835.09	895.92	965.68	1,008.16	1221.01
외환보유고		167,030	174,448	199,066	205,447	204,986	206,731

주: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생명보험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손해보험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은 행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일반계정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신탁계정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증 권	-5,145	5,049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투 신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총 금	-20,816	7,090	940	-18,256	19,416	2,048	-10,616

주: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이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보험료	115,676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28,660	29,441
	성장률	26.5	18.3	17.4	-12.1	4.2	4.9	1.2	-5.6
	구성비	23.0	23.3	24.6	20.9	21.9	22.6	20.9	20.8
사망보험	보험료	229,359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66,402	67,289
	성장률	8.3	11.2	12.9	11.8	9.6	11.3	7.4	6.5
	구성비	45.5	51.0	49.9	41.4	49.1	47.5	48.5	47.5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94,505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18,312	18,700
	성장률	-14.4	-14.6	-11.8	-22.4	-13.0	-15.7	-8.6	-7.7
	구성비	18.8	16.5	16.0	13.0	14.2	14.8	13.4	13.2
변액보험	보험료	7,621	2,785	3,293	6,256	11,456	23,789	12,093	16,215
	성장률	285.7	202.8	189.9	94.9	386.3	212.2	334.3	392.4
	구성비	1.5	2.3	2.6	4.0	8.6	4.4	8.8	11.5
개인보험계	보험료	447,161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125,408	131,646
	성장률	7.6	8.7	10.6	-0.4	11.7	7.4	11.1	11.6
	구성비	88.7	93.2	93.1	79.4	93.9	89.3	91.6	93.0
단체보험	보험료	56,764	8,262	8,769	32,158	8,177	57,366	11,526	9,891
	성장률	-24.5	-18.3	8.3	4.3	5.8	1.1	39.5	12.8
	구성비	11.3	6.8	6.9	20.7	6.1	10.7	8.4	7.0
전체	보험료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4	141,537
	성장률	2.7	6.3	10.4	0.5	11.4	6.7	13.0	11.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60,247	15,433	15,680	18,243	21,794	71,150	17,888	18,534
	증가율	14.5	13.4	14.6	18.5	24.1	18.1	15.9	18.2
	지급률	52.1	54.6	50.3	56.1	74.2	58.6	62.5	63.0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74,428	20,345	21,657	23,811	24,863	90,676	22,699	24,360
	증가율	34.4	21.2	21.7	24.8	19.7	21.8	11.6	12.5
	지급률	32.5	32.9	34.3	36.9	37.8	35.5	34.2	36.2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120,173	25,356	23,603	25,595	27,781	102,335	24,453	25,818
	증가율	15.4	-24.0	-24.6	-10.6	3.4	-14.8	-3.6	9.4
	지급률	127.2	126.6	116.5	126.2	145.6	128.5	133.5	138.1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706	399	404	635	1,467	2,905	598	847
	증가율	1589	468.5	283.1	207.9	353.0	311.6	49.9	109.4
	지급률	9.3	14.3	12.3	10.2	12.8	12.2	4.9	5.2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255,554	61,534	61,344	68,284	75,905	267,067	65,638	69,558
	증가율	20.4	-3.6	-2.5	7.9	15.8	4.5	6.7	13.4
	지급률	57.2	54.5	52.0	55.3	60.4	55.6	52.3	52.8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61,840	11,101	10,492	11,948	15,618	49,159	14,651	11,957
	증가율	-24.6	-27.5	-17.0	-28.9	-8.7	-20.5	32.0	14.0
	지급률	108.9	134.4	119.7	37.2	191.0	85.7	127.1	120.9
전체	지급보험금	317,394	72,635	71,836	80,232	91,522	316,226	80,289	81,515
	증가율	7.9	-8.2	-4.9	0.2	10.8	-0.4	10.5	13.5
	지급률	63.0	59.9	56.7	51.5	68.4	58.8	58.6	57.6

주: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사업비	14,118	3,377	3,623	3,725	5,851	16,576	3,775	4,331
	증가율	-0.2	9.0	10.8	-11.0	64.2	17.4	11.8	19.5
	사업비율	12.2	11.9	11.6	11.4	19.9	13.7	13.2	14.7
사망보험	사업비	61,705	15,836	16,112	16,208	20,444	68,599	16,078	15,790
	증가율	2.2	9.0	9.1	1.9	23.9	11.2	1.5	-2.0
	사업비율	26.9	25.6	25.5	25.1	31.1	26.9	24.2	23.5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7,647	2,078	3,176	4,291	5,443	14,988	5,444	5,497
	증가율	-5.8	21.4	82.6	96.2	170.9	96.0	162.0	73.1
	사업비율	8.1	10.4	15.7	21.2	28.5	18.8	29.7	29.4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
	증가율	-	-	-	-	-	-	-	-
	사업비율	-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83,470	21,291	22,910	24,225	31,737	100,164	25,298	25,618
	증가율	1.0	10.1	15.9	8.7	43.8	20.0	18.8	11.8
	사업비율	18.7	18.9	19.4	19.6	25.2	20.9	20.2	19.5
단체보험계	사업비	2,732	572	605	706	1,203	3,087	686	734
	증가율	6.4	-6.9	-7.3	-1.1	60.4	13.0	19.9	21.2
	사업비율	4.8	6.9	6.9	2.2	14.7	5.4	6.0	7.4
전체	사업비	86,202	21,863	23,516	24,931	32,941	103,251	25,983	26,351
	증가율	1.2	9.6	15.1	8.4	44.3	19.8	18.8	12.1
	사업비율	17.1	18.0	18.6	16.0	24.6	19.2	19.0	18.6

-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763	664	825	685	2,937	794	751
	성장률	-7.5	-12.8	-6.4	-1.0	-7.1	4.1	13.2
	구성비	1.4	1.2	1.3	21.2	1.3	1.3	1.2
해 상	보험료	1,263	1,410	1,263	1,135	5,071	1,399	1,412
	성장률	-9.5	1.8	9.7	-13.3	-3.2	10.7	0.2
	구성비	2.3	2.5	2.0	2.0	2.2	2.3	2.3
자동차	보험료	20,851	21,528	21,991	20,838	85,208	21,386	22,062
	성장률	10.1	4.2	8.3	5.8	7.0	2.6	2.5
	구성비	37.4	37.7	35.3	36.4	36.7	34.9	35.5
보 증	보험료	2,353	2,179	2,218	2,268	9,018	2,255	2,391
	성장률	-2.9	-3.6	-1.8	-8.3	-4.3	-4.2	9.7
	구성비	4.2	3.8	3.6	4.0	3.9	3.7	3.9
특 종	보험료	5,083	5,088	5,691	4,507	20,369	5,745	5,744
	성장률	11.8	14.2	10.7	14.6	12.7	13.0	12.9
	구성비	9.1	8.9	9.1	7.9	8.8	9.4	9.3
해외 원보험	보험료	208	214	188	186	796	129	143
	성장률	51.9	38.4	15.3	7.0	26.7	-37.8	-33.0
	구성비	0.4	0.4	0.3	0.3	0.3	0.2	0.2
장 기	보험료	22,795	23,553	24,710	25,295	96,353	26,459	27,435
	성장률	9.2	12.2	13.3	14.3	12.3	16.1	16.5
	구성비	40.9	41.3	39.7	44.2	41.5	43.2	44.2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6	1,680	1,695	1,679	6,799	1,684	1,715
	성장률	2.5	-1.5	-1.3	-3.9	-1.1	-3.5	2.1
	구성비	3.1	2.9	2.7	2.9	2.9	2.8	2.8
퇴 직 보 험	보험료	686	715	3,642	579	5,622	1,383	410
	성장률	113.2	84.3	4.4	-22.9	13.6	101.8	-42.7
	구성비	1.2	1.3	5.9	1.0	2.4	2.3	0.7
계	보험료	55,748	57,031	62,222	57,172	232,173	61,236	62,063
	성장률	9.0	8.1	9.3	8.1	8.6	9.8	8.8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2.7	58.8	54.8	56.4	38.8	42.8
	사업비율	57.2	54.7	55.6	55.0	53.8	52.3
	합산비율	109.8	113.5	110.4	111.4	92.6	95.1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1.3	51.3	49.3	49.5	42.8	50.3
	사업비율	34.2	31.5	32.7	30.0	28.3	29.3
	합산비율	95.5	82.8	82.0	79.5	71.1	79.7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1.6	72.3	72.7	72.7	71.5	73.0
	사업비율	30.3	31.2	31.8	32.2	30.6	31.1
	합산비율	102.0	103.5	104.5	104.9	102.0	104.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6.6	27.6	21.9	25.3	27.9	10.7
	사업비율	6.8	16.6	16.2	20.5	12.8	18.4
	합산비율	53.4	44.2	38.1	45.8	40.7	29.1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3.1	47.4	46.5	52.0	40.3	47.0
	사업비율	22.1	22.5	25.0	26.5	25.1	24.9
	합산비율	65.2	69.9	71.5	78.6	65.4	72.0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3.2	44.3	49.4	41.0	29.1	43.3
	사업비율	22.2	83.0	89.8	80.2	73.1	65.6
	합산비율	35.4	127.3	139.2	121.2	102.2	108.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5.9	86.6	87.1	87.9	85.6	85.6
	사업비율	15.9	15.8	15.7	15.4	15.6	15.9
	합산비율	101.7	102.4	102.8	103.3	101.2	101.5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7.9	118.4	118.1	123.8	117.6	118.7
	사업비율	9.9	10.4	10.4	10.5	9.9	9.6
	합산비율	127.8	128.8	128.5	134.3	127.4	128.4
전 체	경과손해율	76.1	76.6	76.6	77.7	75.3	75.9
	사업비율	21.8	22.6	23.0	23.2	22.1	22.6
	합산비율	97.9	99.2	99.6	100.8	97.4	98.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